힘내라 대한민국!

‘나라사랑 큰 나무’를 가슴에 달아주세요!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국권회복과 6·25전쟁 등에서 국가수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애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이룩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애국선열들의 값진 희생에 대한 감사와 예우 그리고 국가발전의 상징으로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달기 운동에 동참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립시다.

나라사랑 큰 나무

나무 형상은 ‘대한민국’, 태극무늬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열매는 ‘풍요로움과 번영’ 그리고 파랑새와 새싹은 ‘자유와 내일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외국의 보훈 상징

영국·프랑스·캐나다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11월 11일 11시를 기념하여 ‘양귀비’를 전몰용사의 상징으로 삼아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Tel: 02)2020-5224 Fax: 02)782-0937 www.mpva.go.kr

Weekly_2009.06.24_No.17(통권 118호)

Contents

기획특집 서민 섬기는 민생정책

발행일 2009.6.2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서민 위한 따뜻한 국정 운영

복지예산 전년 대비 19.1퍼센트 증가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 운영, 바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다.
지난해 하반기 전 세계에 불어닥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속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노력과 더불어 불황기에 가장 고통 받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를 위한 정부' '서민 생활을 도외시하는 정부'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6월 19일 정부가 마련한 정책자료 '이명박 정부 서민정책 이렇습니다'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펼쳐온 국정기조를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 운영'으로 정의했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서민정책은 언제나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어왔다. 지난해 3월 3일 열린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었다. 그 결과 유류세 인하,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퍼센트 인하, 소액서민대출은행 설립,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등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이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 국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가운데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서민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국정 운영을 펼쳐왔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부단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민생정책은 크게 △복지부문 지출 증가와 서민 대상 감세 등 재정지원 확대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추며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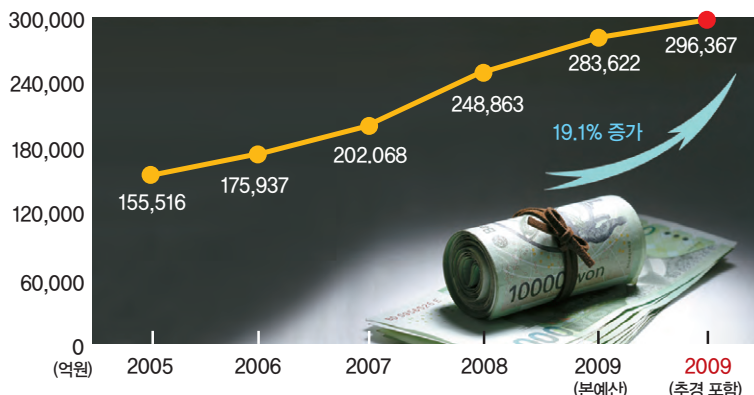
올해 정부의 복지예산은 29조6천3백67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9.1퍼센트 증가했다. 지난해 복지예산도 24조8천8백63억원으로 전년(20조2천68억원)과 비교해 4조6천7백95억원이 증가한 것이었다. 올해 복지예산은 2008년보다 3조4천7백59억원을 증액했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2천7백45억원을 증액해 2008년도와 비교하면 19.1퍼센트나 증가하게 됐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복지예산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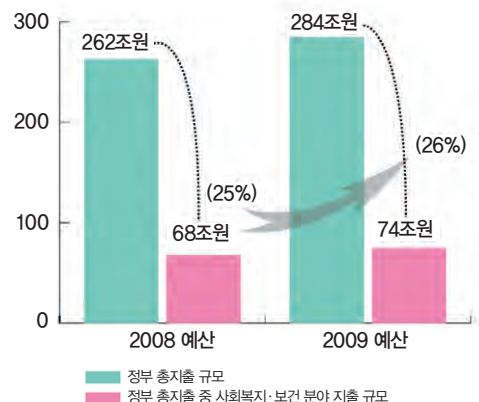
"일자리가 최고 복지" 경제 부문 지출 20퍼센트대 확대

정부의 총지출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총지출 규모도 늘었다. 2008년의 경우 정부의 총지출예산 2백62조원 중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총지출이 68조원(25퍼센트)이었으나 2009년에는 2백84조원 가운데 74조원(26퍼센트)으로 지출 규모가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된 경제위기로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증가하면서 '경제위기 극복 재정지원액' 49조6천억원 가운데 62.9퍼센트인 31조2천억원이 서민을 대상으로 지원됐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긴급생계 지원, 신용 지원, 식생활과 보육 지원, 근로자와 자영업자 대상 감세 등에 투입됐다.

특히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등 일시

2009년 복지예산 얼마나 되나

정부 총지출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규모

동아DB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구석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소외된 이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지향점이다.

적 어려움을 겪는 긴급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2008년 3백78억원(2만7천 가구 대상)에서 2009년 당초 예산에서는 5백15억원(4만2천 가구 대상),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되면서는 1천5백33억원(9만1천 가구 대상)으로 전년보다 3배나 늘었다.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 복지'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MB노믹스'를 펼치며 참여정부 기간 중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던 경제부문 지출 비중도 20퍼센트대로 확대했다.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감세도 적극 이뤄졌다. 지난해 한때 1백40달러대까지 치솟았던 유가 급등에 따른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6월)을 통해 5조5천억원을 감세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제 재도약 세제개편안'을 통해 7조6천억원의 감세를 단행했다. 국제 금융위기 발생 이후인 지난해 11월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다시 3조3천억원을 감세했다.

정부는 그동안 위기관리대책위원회를 통해 총 1백17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34.2퍼센트인 40개 안건이 서민생활 관련 안건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53건의 안건 중 서민생활 관련 안건이 30건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위기관리대책위원회를 통해 총 1백17개 안건(올해 6월 10일 현재)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34.2퍼센트인 40개 안건이 서민생활 관련 안건이었다. 특히 국제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53건의 안건 중 서민생활 관련 안건이 30건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일 고유가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명칭을 바꿨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그간 모두 15차례의 회의를 통해 논의된 총 45건의 안건 중 17건이 중소기업대출 활성화, 신용보증 확대, 일자리 나누기, 민생안정 긴급지원 등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안건들이었다.

정부는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교육 강화 정책을 펴오며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원 능력 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정보 공시 등 과감한 교육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숙형 공립고를 만들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전국에 마이스터고를 확대하는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행복한 미래의 삶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이 자칫 복지정책 소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좀 더 커다란 복지인 '파이(Pie) 키우기'를 위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도 성장의 그늘에 놓일 수 있는 서민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Weekly 공감〉 16호(6월 17일자)는 정부가 6월 8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환경오염과 부동산 투기 등을 염려하는 독자들의 댓글과 답변을 소개합니다.

"일반 생태학 교재에서 말하는 'Biological Niche'에 대한 개념부터 잡도록 하시죠. 식수원, 식수원 반복하시는데 종 다양성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종 다양성이 거세된 강이 왜 오염에 취약한지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세요." _ RING

▶ '생태적 지위(Biological Niche)' 라는 개념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겠죠. 준설과 강 정비를 하게 되면 이런 환경이 파괴돼 다양한 생물종이 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원 지역은 준설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강 정비사업인데 대운하사업을 위해서는 강의 폭과 깊이가 일정하게 되도록 파야겠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수로도 폭이 일정한 직선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하천 형상 그대로 유지합니다. 경관이 좋은 모래섬 등도 최대한 그대로 살려두려고 합니다.

"1980년대 한강 개발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강가를) 덮는 게 콘크리트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강 개발하고 주변 땅값 치솟고 몇 안 되는 누군가는 또 이득을 보겠지요." _ 아름다운세상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방적으로 개발하던 과거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충분한 수량 확보와 원활한 강물 흐름을 위해 보와 저수로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동식 보와 자연하천형 저수로를 만들어 최대한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15호(6월 10일자)에 실린 '탤런트 윤상현, 이동 푸드마켓 자원봉사' 기사를 읽고 여러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조의 여왕' 에서 '태봉이'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윤상현 씨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라디오를 통해 나온 '네버엔딩 스토리'…. 멋진 연기, 멋진 노래.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그 말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윤상현 씨 되세요." _ hong 그리고 buni

똑똑똑… 궁금합니다

●● 〈Weekly 공감〉 14호(6월 3일자)에 실린 '환경지킴이 공무원' 기사를 읽고 한 독자가 한강유역환경청 한강환경지킴이들의 역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강환경지킴이들이 4대강 보에도 똑같이 파견된다고 하죠? 4대강 보에 있는 강물들이 오염되면 관리하기 위한 포석인가요?" _ 우루사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한강환경지킴이들은 북한강팀, 남한강팀, 팔당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설치될 '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 포석용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질문이지요.
먼저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만드는 보는 기존의 고정식 보가 아니라 수문을 갖춘 가동식 보입니다. 수문을 통해 강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홍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나 빗물에 실려온 나뭇가지 등은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한강환경지킴이들은 그야말로 한강의 수자원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확대 해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대강에 설치되는 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16호(6월 17일자)에 실린 '4대강 살리기 1000일 후 대한민국' 기사를 읽고 한 독자가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왜 믿을 수가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을 보여주세요. 구체적인 안 없이 늘어가는 예산만 보자니 답답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보여주면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_ 쑥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의 모습이 너무 장밋빛으로 채색된 것 같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가상 스케치만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1000일간의 국민과의 약속, 자연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믿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공 감 퍼 즐

1			2	3	
4	5				
	6				
					7
			8		
9					

정답을 적어 주소·연락처와 함께 7월 1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몇 분을 뽑아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가 로

2. 경제도 어려운데 OOO 구하기가 쉽지 않죠. 직장을 순우리말로 풀어 쓰면 뭘까요?
4. 삶과 죽음. "그는 6·25전쟁에서 나와 OO를 같이한 전우다."
6.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우리 경제가 OO되고 있는 중이다."
8.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核戰力)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 6월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은 OOO을 포함한 확장 억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앞일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서민에게 OO을 주는 정부의 지원대책."

세 로

1. 일반 국민들의 생활 또는 생계를 이르는 말. "OO을 살펴야 나라가 안정된다."
3. 음식점 등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 "경제난으로 최근 1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OOO 종사자들이 30여만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5. 정부가 실업자나 생계곤란자 등이 무기력층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OOOOO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7. 한 국가나 사회에서 중간 정도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는 계층.
8.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Weekly 공감〉 15호(6월 10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2 친구 3 다문화가정 7 만수산 8 시집 9 성공
세로 1 전문가 2 친정 4 가화만사성 5 안산 6 코시안
당첨자
김애란(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8리) 김지영(광주시 북구 신안동)
유명희(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이세미(강원 춘천시 삼천동)
홍경석(대전시 중구 산성동)

동아DB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단독회담만 50분 양국 정상 모두 "만족"

북핵 공조 다지고 한미 FTA 이견 좁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북핵 공조'를 굳건히 했을 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큰 진전을 보였다.
이 밖에 범세계적 이슈에도 적극 공조키로 하는 등 '협력 스펙트럼'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6월 16일(이하 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렸다. 양자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로, 양국 간 정상 방문을 통한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회담은 각각 통역 한 명씩만 배석한 채 단독회담 형태로 50분간 진행됐다. 당초 두 정상만 참석하는 단독회담 15분, 관련 각료들까지 참석하는 확대회담 35분으로 예정됐지만 두 정상이 단독회담에 시간을 다 할애한 것이다. 그만큼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두 정상은 환한 표정이었으며 때때로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친근감을 과시했다.

양 정상은 단독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맹관계 심화 발전 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및 대북정책 관련 공조방안 등 안보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국제문제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만족스러운 회담"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미 행정부 핵심 각료들을 접견할 때도 그렇고 두 정상이 환담할 때, 정상오찬 때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전적으로 동감이다'는 말이었다"면서 "틈새 없는 진정한 동맹관계 구축이 가능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공조'를 굳건히 한 것 외에도 한미 FTA에 큰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던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FTA 진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강력한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FTA가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선 실질적인 이슈를 해결하게 되면, 의회에 언제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정치적인 타이밍'과 관련한 문제가 남게 될 것"이라면서 "일의 선후가 바뀌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마차가 말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비유해 한미 FTA 쟁점 해소 이전에는 의회 비준동의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는 쇠고기 수입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내가 미국민을 위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대통령이 한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시점에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안에 비준동의를 미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이 대통령과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동아DB

조지 워싱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우리의 강력한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FTA가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지구촌 테러 문제는 물론 해적, 조직범죄와 마약, 빈곤, 인권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명문화했다. 또한 G20 등 범세계적 경제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체제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범세계적 이슈에도 한국과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하겠다"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파트너십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한미관계는 금융위기 공조에서 북핵 공조, 범세계적 이슈 공조로 진화하면서 '협력 스펙트럼(대역)'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 각계각층에 "한국에 투자" 홍보 나서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상하원 지도부를 면담했다. 정상회담에 앞선 6월 15일에는 블레어하우스(영빈관)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 오바마 행정부 핵심 각료들을 잇따라 접견하고 양국 간 분야별 현안을 논의했다.

6월 16일 저녁엔 한미 최고경영자(CEO) 만찬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기업 활동의 장벽을 없애고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줘 양국을 진정한 경제동맹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며 "FTA 혜택을 보게 될 기업인들이 양국 의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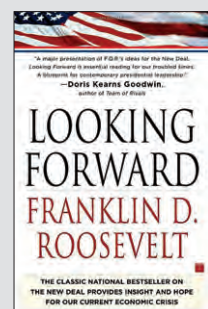
또한 "한국은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회복 중이며 잠재 투자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는 노사문제 등도 개선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분야와 IT·BT(정보기술·생명공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한(對韓) 투자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6월 17일 조지 워싱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뒤 학생들을 상대로 '글로벌 코리아와 녹색성장 비전'을 주제로 연설하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18일 귀국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美대통령의 선물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저서 두 권을 선물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물한 책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저서 〈Looking forward〉 〈On our way〉다. 〈Looking forward〉(1933년 출간)는 미국의 뉴딜정책에 대한 설명을 수록했고, 〈On our way〉(1934년)는 루스벨트 전 대통령 취임 후 1백일간의 성과를 다룬 책으로 미국 재건을 위한 비전이 담겨 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함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등 녹색성장 정책이 대공황시대에 미국을 살린 뉴딜정책과 맥이 닿아 있어 이 책을 선물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면서 "이 책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메모와 함께 특별 제작된 가죽 박스에 담겨 오바마 대통령의 인장으로 봉인이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에 보상하는 일 절대 없을 것"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북한 핵문제 대응에 대한 강력한 한미공조를 확인하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격상시켰다는 점이다. '북핵 불용'을 천명한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을 뿐 아니라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담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월 16일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을 천명, 최근 핵실험에 이어 우라늄 농축을 선언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제재(Sanction) 의지를 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대북 압박 공조를 이뤄낸 자리"라고 평할 정도였다.

또한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담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한미관계는 기존의 군사안보동맹 틀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북핵과 관련, 한미공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과거 행태와 지속적으로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볼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보상이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깨자는 것"이라며 "북핵 위협으로 인한 보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과거 협상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미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 '북핵 불용'을 거듭 천명한 것은 상징성이 크다. 북한이 북핵을 고집한다면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한미 정상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핵우산 확장, 북 도발 막는 최선의 카드 될 수도

양 정상은 강력한 제재에 방점을 두면서도 "북한이 선택할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설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세계경제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자국민을 먹일 수 있으며, 또 자국민을 번영시킬 수 있다"며 "그런 노선을 걸으려면 북한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핵 포기를 설득했다. 이 대통령 역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제 과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과거 방식을 버리고 빨리 핵을 폐기한 다음 국제사회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간의 철저한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한·미·일·중·러)이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양 정상은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나가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10개 항으로 이뤄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CEO 만찬간담회(오른쪽 사진)에서 한미동맹과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US)'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맺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형'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을 계기로 양국 '국방 벨트'가 한층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핵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에 미국 핵우산을 제공하는 내용의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명문화한 것이다. 확장억지력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처음 적용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안보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핵우산 확장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핵 확장 억지력을 보장한 것은 우리나라가 핵 공격을 받을 때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것과 똑같게 보고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대응 타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제공하는 핵우산보다 훨씬 강한 방위 개념이다.

양 정상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 상황과 안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조정 소요(所要 ·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바)가 발생하면 긴밀한 협의 아래 검토, 보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오는 2012년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기존 합의를 지켜나가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이 같은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 정상이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한미동맹 전 분야에서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빌 클린턴-조지 W 부시 등 한미 양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때마다 이 부분에서 적잖은 이견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정상회담장엔 늘 긴장이 감돌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과 오찬 자리에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韓美 정상이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한미동맹 전 분야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과 오찬 자리에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뿐 아니라 미 연방 상하원 의장단,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해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G

글 · 최호열 기자

2007년 4월 당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한 후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한미 FTA, 더 미뤄서는 안 돼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우리의 2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지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미 FTA는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양국 간 외교·안보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6월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다시 만났다. 4월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첫 대면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국회의 비준문제로 지난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가 한 발짝 더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는 양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세계무역 확대 논의가 부진한 상태에서 FTA라는 양자무역체제를 통한 시장 확대는 지금과 같은 경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규모에 비해 내수시장이 작고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한미 FTA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우리의 2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FTA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FTA가 우리 경제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 발효국과의 교역동향을 분석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칠레와의 교역규모는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5년간 3.9배 확대됐고,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는 칠레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가 걱정한 칠레산 농수산물의 피해는 당초 우려보다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어 양국 간 외교·안보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한미 FTA에 대해 일부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07년 11월에 취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질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의 경우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15년간 피해액(10조5천억원)의 2배가 넘는 23조2천억원을 10년에 걸쳐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에게 한미 FTA 비준은 빠를수록 좋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양국이 합의한 협정안을 마무리짓도록 요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FTA 체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FTA로 인한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G

글 · 이성한(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 24일 서울서 개막

경제위기 해답, 여성에서 찾는다

제3차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아시아권 여성의 지위 향상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이번 회의에는 동아시아 13개국 각료들이 참석해 '경제위기와 여성'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차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가 열린다.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는 2006년 일본에서 처음 열렸으며, 2007년 인도에서의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내에서 아시아 여성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아시아권 여성의 지위 향상과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다.

회의에는 동아시아권 13개국의 양성평등 각료들과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 여성지위향상국(UNDAW) 등 3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13개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중국, 태국, 브루나이, 수리남이다.

회의 주제는 '경제위기와 여성.' 참가국 수석대표의 의제 관련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이어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성인 지적 정보사회, 거버넌스와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 폭력에 대한 분과별 회의가 마련된다. 1, 2차 회의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검토하는 고위급 원탁회의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아시아권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동아시아 여성 관련 분야 주도적 위치 확보 기대"

25, 26일 양일간 회의에서 논의한 경제위기와 여성에 대한 각국 상호 간의 실천의지는 최종 합의문(Seoul Joint Ministerial Communique)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이번 각료회의 개최를 통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신아시아 외교'의 본격 가동에 발맞춰 여성관련 분야에서 동아시아지역 내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국제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메시지의 확산과 아시아권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동아시아 양성평등 각료회의는 지난 2006년 처음 열렸다.

비 온 뒤의 무지개처럼...

통일의 준비단계를 넘어 도약의 단계로
더 큰 하나를 향해 나아가는 화합의 세계로
7천만이 함께 잘 사는
상생공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되겠습니다.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가 7월 1일 개최됩니다.

날 짜 : 2009. 7. 1(수)
장 소 :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
참 석 : 국내 전 자문위원, 해외 간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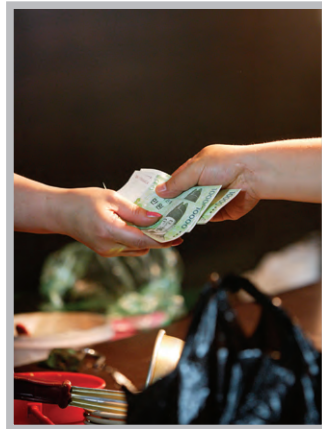



사진 · 정경택 기자, 홍종식 기자

서민 챙기는 민생정책

기획특집

세계적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정부는 '위기에 가장 취약한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오고 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감세를 실시했고, 정부 재정지출 가운데 복지부문 비중도 크게 늘렸다. 정부는 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 아래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에도 전념해왔다.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역시 국정의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민이 체감하도록 물가 잡겠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 다시금 '고물가'에 직면한 정부는 물가관리는 물론 서민을 돕기 위한 정책 실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주부 정하연(38) 씨는 요즘 장을 보러 가기가 두렵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닭고기 한 팩, 쇠고기 한 근, 고등어 한 손, 달걀 한 판, 라면(5개들이), 양파 한 봉지, 콩나물, 수박만 샀는데도 영수증엔 5만원 가까운 금액이 찍혀 나왔다. 정 씨는 "1만원 한 장으로는 요즘 살 게 없다. 정부는 물가 상승이 둔화된다고 발표하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건 전혀 딴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6월 2일,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퍼센트가 올라 1년 8개월 만에 2퍼센트대에 들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인 물가 안정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생활물가(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4백89개 품목 중 구입빈도 및 지출 비중이 높은 1백52개 품목을 바탕으로 산출한 물가지수)로만 보면 체감 물가는 높게만 느껴진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닭고기 1킬로그램당 5월 평균 가격(소매 기준)이 5,547원으로 1년 전보다 53퍼센트 급등했고, 고등어(중품) 한 마리 가격도 지난해 5월 2,832원에서 올해는 4,143원으로 치솟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배추, 무, 감자 등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수급 악화가 꼽히고 있다. 배추는 봄가뭄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했고, 달걀과 우유는 사료값 인상이, 고등어는 어획량 감소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생활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처럼 주로 공급 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변동성이 크지만 지속성은 짧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에 미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으로 그치는 등 물가 안정 및 서민을 위한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분석과는 별개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교육비, 외식비, 공산품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 조짐을 보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물가 안정을 위해 낮췄던 30여 개 수입품목 관세율이 다음 달부터는 원상회복됨에 따라 곡물값 상승곡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 인상 시기도 늦춰

물가 상승은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쳐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다시금 물가를 다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물가 관련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물가안정위원회를 없애고 8월 말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가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 조율을 맡을 예정이다. 물가 변화에 더욱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에서다.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른 택시 기본요금을 시작으로,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정됐던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확정된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외에 추가 인상은 없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 올리는 시기도 서민 부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가능하면 연내에는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그간 공공요금 현실화를 주장했던 지식경제부 역시 점진적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물가 인상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어하자는 데 정부와 지자체들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訪美) 전날인 6월 15일 제1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제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안보와 경제, 특히 민생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힌 것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각오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로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경제회복을 체감하는 데는 거꾸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민과 중소기업정책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서민정책에 가장 큰 신경을 써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민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물가 상승을 둘러싼 서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감세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편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가 추진한 감세의 약 70퍼센트 가까운 혜택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감세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2008년 9월 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과 올해 상반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부세 및 소득세 인하와 기업 부담을 경감해주는 법인세 인하의 두 축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2퍼센트 포인트씩 일률 인하된다. 이에 따라 8~36퍼센트에 이르던 세율이 6~34퍼센트로 줄어든다. 또 1인당 공제액(1백5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50만원 증가)을 늘리는 대신 연간급여 5백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10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줄였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커지도록 배려할 것이다. 자녀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도 늘렸다.

정부정책 대부분 서민위한 정책에 집중

법인세도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순이익 2억원 이하 기업에는 1퍼센트 포인트 인하하고, 2억원 이상 기업에는 2퍼센트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런 세율 인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숫자가 훨씬 많아 그 혜택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로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경제회복을 체감하는 데는 거꾸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민과 중소기업정책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말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어 있다"고 비판하지만 정부 정책의 상당 부분은 서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돼 있다. 실례로 정부는 지난 3월 11일 총 6조1천억원 규모의 '민생안전 긴급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생계가 곤란한 1백20만 가구에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5만명에게 일자리와 월 80여만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적극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여당은 민생법안을 더는 미뤄둘 수 없다고 보고, 6월 국회에 30개 '긴급 민생법안'을 상정해놓고 있다. 긴급 민생법안에는 비정규직 보호3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비롯해 고용보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련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여당은 6월 중 국회가 열리는 대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G

글 · 정지연 기자

2009 대한민국 서민 삶의 현장

"다른 건 모르겠고… 집값이랑 교육비 좀 내렸음

#1 남대문시장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 기다려"

하루 이용객 45만여 명. 외국인들이 서울을 방문하면 반드시 들른다는 남대문시장. 도 · 소매를 겸해 전국에서 중간도매상과 소매상이 모여들 뿐 아니라 일반 이용객도 많이 찾는 곳이다.

6월 16일 밤 11시. 대한화재 빌딩 옆길로 들어선 남대문시장은 을씨년스러웠다. 몇 해 전 비슷한 시각에 찾았을 때 새벽 장사 준비에 부산하던 상인들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이었다.

남대문시장 여기저기를 둘러보아도 문 닫은 가게가 더 많다.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한 블럭 내려가 보니 길모퉁이에서 냉커피와 냉미숫가루를 파는 아주머니가 손수레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냉미숫가루를 한 그릇 시켜 놓고 말을 건넸다.

"문 닫은 가게가 많네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별로야. 지금쯤이면 새벽 장사할 사람들 가게 문 열고 그래야 하는데, 올 들어 더 심해."

"아주머니 장사는 좀 어떠세요?"

"지금쯤 커피 달라는 주문이 와야 하는데, 한 곳도 없잖아."

불황에 문 연 상가 드문드문 "살기 힘들어졌어요"

서울 강서구에 산다는 이 아주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남대문시장에서 커피 장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17년째라고 했다.

"처음에는 시장통 네거리마다 커피 손수레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너 군데만 장사를 하고 나머지는 없어졌어. 예전만큼 장사가 안되니까. 외환위기 이후로 계속 내리막이야, 시장은."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무점포 상인에게 대출도 해주고…."

"그 돈 쓰면 이자 안 무나? 외환위기 때 신용불량자 된 상인이 많아서 아예 신청조차 못하는 사람이 많아. 또 그 돈 신청하려면 절차도 복잡하잖아. 은행에다 뭘 신청하라고 하고, 이것저것 증명서 떼오라고 하고….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서민이야."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국은행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니 문 닫은 가게들 사이에 문 연 가게가 하나 둘씩 눈에 띈다. 가게 앞에 간이의자를 놓고 나란히 앉아 있는 상인들에게 다가갔다.

"요즘 장사가 신통치 않은 모양이에요. 문 연 곳보다 닫은 곳이 많은 걸 보면…."

"문 열면 더 손해야. 전기세나 나가고…."

"그래도 장사를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아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 열어놓고 마냥 기다리는 거지.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요즘 장사가 어려운 모양이죠."

기자의 신분을 밝히자, 상인들의 긴 탄식이 이어졌다.

"장사도 장사지만, 좀 벌어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못 살아. 큰 애가 20만원 드는데, 작은애는 40만원 들어. 교육비가 워낙 올라서 살기가 더 힘들어졌지. 아예 학교를 없애든가, 학원을 없애든가 해야지 이건 뭐…."

교육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소매가 좀 돼야 도매가 살고, 도매가 잘돼야 공장이 잘 돌아가는 건데, 무작정 기업들에게 돈 줘봐야 물건이 팔리나? 소매가 살아나게 해야 돼. 소매가 안되니까, 자꾸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 거야."

일견 타당한 이야기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소매가 살아날 수 있을까. 결국 소비주체인 가정이 지갑을 열어야 하는데 고용환경은 나빠져만 가니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쉽지 않은 문제다.

지하철 회현역 인근 대로변으로 나와 보니 시장 쪽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주차해 있었다. 물건을 구매하러 단체로 올라온 지방 상인들을 태우고 온 차들이었다. 예전에는 버스가 너무 많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는데, 이날은 버스가 많지 않아서인지 차량 흐름이 원활했다.

밤 늦은 시각 남대문시장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희망'의 브라보를 외치는 젊은이들.

좋겠어요"

지난해 세계적 금융위기 때보다 증시와 환율 등
우리 경제여건이 조금씩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삶의 현장 곳곳을 돌며 우리 이웃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남대문시장이 예전과 같은 활기를 잃은 데에는 지방 상권이 위축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에서 올라온 한 차량을 보니 승객과 버스운전기사 모두 자리를 비운 터였다. 관광버스 바로 옆에서 액세서리 노점을 하는 한 상인이 "무슨 일이냐"고 말을 걸어왔다.

"다들 장보러 가신 모양이죠?"

"운전기사는 자러 갔고, 상인들은 물건 하러 갔죠."

"많이들 오셨나요?"

"글쎄, 한 절반 조금 넘게 왔던걸. 요즘은 지방에서도 뜸하게 올라와. 1주일에 세 번씩은 왔었는데, 요즘은 두 번이나 올라오나? 버스에 상인들이 꽉 차는 법이 없어."

남대문시장이 예전과 같은 활기를 잃은 데에는 지방 상권이 살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남대문시장 내 쇼핑센터 입구에서 만난 한 충청도지역 상인은 "장사가 좀 될 때는 물건을 져서 날라주는 사람을 써야 할 정도였시유. 그런데 지금은 한 손으로도 충분히 들 정도만 물건을 해가유. 그래도 이게 다 팔릴지 몰라유"라며 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설명했다.

남대문시장, 대형 할인마트·인터넷 쇼핑에 밀려

재래시장이 어려워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주차장이 잘 구비된 대형 할인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편리하게 쇼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컴퓨터 자판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인터넷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재래시장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과거 서민시장의 대명사로 명성을 떨쳤던 남대문시장 역시 이젠 명맥만 유지한 채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울역 "어려우니 술 안마시고 택시 승객 없어"

회현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요즘 손님이 좀 있나요?"

"말도 마쇼. 요금 오르고는 더 없어요(서울지역 택시요금은 6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1천9백원에서 2천4백원으로 5백원 올랐다). 내가 오후 5시에 나왔는데, 지금 새벽 1시까지 겨우 몇 만원밖에 못 벌었다니까요. 이러면 안되는데…."

"그래도 퇴근시간이나 지하철, 버스 끊기는 시간대에는 손님이 좀 있지 않아요?"

"옛말이에요. 술이나 한잔 먹어야 택시 타는데, 어려우니까 다들 일찍 들어가는가 봐요."

기본요금이 오른 뒤 아직 법인택시들은 사납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손님이 줄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는 "손님도 없는데 사납금까지 올리면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죽어나죠"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역 앞.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노숙인 몇 사람과 어묵 국물에 소주 몇 병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소주잔을 한동안 주거니 받거니 하며 노숙인 삶의 애환을 들려주던 한 '왕초' 노숙인이 대뜸 "술 사먹게 5만원만 내놓고 가라"고 했다.

취재에 응한 대가를 달라는 얘기였다. '노숙인 생활을 인터뷰해주고 돈 받기'가 하나의 '사업 아이템'쯤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 쓴웃음이 나왔다.

노량진 수산시장
에이~ 하이~ 활기 넘치는 새벽시장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다. 경매가 한창 진행될 시간이었다.

을씨년스러운 남대문시장이나 휑한 서울역에 비해 수산시장은 활기가 넘쳤다.

"에이 웨이 하이"라는 추임새를 적절히 넣어가며 진행하는 경매 모습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이 났다.

경매 받은 물건을 자신의 차에 싣던 한 중간도매상은 "서민들의 생활상을 취재 나왔다"는 기자의 말에 대뜸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남 탓"이라고 했다.

"잘나도 못나도 다 제 탓하며 살아갈 궁리를 해야지. 손 벌리면 그때뿐, 그게 해결책이 되냐"고 했다.

"정부가 어려운 서민을 위해 금융 지원 등 여러 지원책을 펴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세금 걷어다 백성 위해 쓰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라며 "생색내지 말고 차분하게 꼭 필요한 일이 뭔지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 상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집값 좀 낮추고, 교육비 좀 덜 들게 해주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청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신혼부부 반값 아파트 공약'까지 거론하며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 살 능력이 안 돼 못 하고 있다"며 "싼 집을 많이 공급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서민들에겐 주거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는 듯했다. 또 자녀를 둔 서민 부모에게는 주거 못지않게 교육비 부담 역시 큰 골칫거리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경매 받은 물건을 자신의 차에 싣던 한 중간도매상은 "잘나도 못나도 다 제 탓하며 살아갈 궁리를 해야지. 손 벌리면 그때뿐, 그게 해결책은 아니죠. 다른 것은 몰라도 집값 좀 낮추고, 교육비 좀 덜 들게 해주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남구로역
경기 침체로 인력시장도 불황

먼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새벽 5시 20분. 인력시장이 열리는 남구로역으로 향했다. 이른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남구로역 주변에는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멘 수백명의 인부와 수많은 봉고차가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동행한 구로구청 류시일 지역경제과 팀장은 "새벽 4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5시를 전후해 절정을 이룬다"고 했다.

분주하게 봉고차가 오가더니 6시가 넘어서자 일터로 향하는 인부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조금씩 한산해지기 시작했다.

가로수에 가방을 매달아두고 느긋하게 서 있는 한 인부에게 말을 건넸다.

"언제 나오셨어요?"

"4시요."

"그럼 2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일자리를 못 잡으신 건가요?"

"10시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일반 잡부 일당은 7만원, 기술이 있으면 12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족 인부가 대거 유입되면서 잡부 일당이 5만원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올해 45세라는 이 인부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이수해도 정작 중소기업 등에서 나이를 문제 삼아 채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인력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그마저도 경기침체 여파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인력회사를 이용해보시지 그래요."

"7만원 일당 받는데, 7천원 수수료 떼고, 봉고차 이용료(1만원 수준) 주고, 밥 사먹고 차비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오전 7시가 가까워졌다. 아침도 못 먹고 마냥 일감을 기다리던 노인 인부 몇몇이 자리를 잡고 막걸리판을 벌이고 있었다. 오늘 일 나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며칠은 물론 한달 가까이 일을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다.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올려다본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조금만 건드려도 곧 빗방울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아야 하는 고단한 삶, 일감이 있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도 새벽잠을 포기하고 일감을 기다리는 인부들.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지금 심정이 우울한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기자만의 착각일까. 그래도 구름 뒤에는 어김없이 태양이 떠 있을 것이다. G

글 · 구자홍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남구로역 앞은 이른 새벽부터 하루 일거리를 찾기 위해 나온 수백명의 인부들로 가득했다.

빈곤층 1백만 가구에 4조 지원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은 경기침체 여파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를 통해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아DB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와 의료,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생계

"맞춤형 생계지원대책으로 생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8조4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밝힌 5대 중점 분야 가운데 첫번째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이었다. 4조1천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빈곤층 1백만 가구, 약 2백22만명의 생계를 추가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즉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5만 가구와 휴·폐업, 실직 등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5만 가구, 그리고 기초생활보호자와 비슷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90만 가구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경제상황 악화로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게 된 서민과 위기 가구가 증가하자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와 의료, 교육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중대한 질병과 부상을 추가해 생계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요건 가운데 금융재산과 총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금융재산의 경우 1백20만원이던 것을 3백만원으로 올렸고, 총재산도 대도시는 9천5백만원에서 1억3천5백만원으로, 중소도시는 7천7백만원에서 8천5백만원으로 높였다.

최저 생계비 133만원으로 인상

경제상황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서민층 지원을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지난해 1백27만원에서 올해 1백33만원(4인 기준)으로 4.8퍼센트 인상했다. 또 수급자격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1백53만명에서 1백63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의 상한선을 대도시의 경우 1억1천2백만원이었던 것을 1억5천만원으로 높였고, 농어촌은 9천만원에서 1억1천9백만원으로 조정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 12만5천명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7만6천원씩을 각각 신규로 지원했고, 장애인과 아동시설 등 보장시설 수급자 8만6천명에게 74억원의 예산을 들여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신규로 세 가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는 6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한시생계구호 프로그램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46만 가

동아DB

서민층 지원을 위해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올해 1백33만원(4인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4.8퍼센트 인상했다.

구 1백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최장 6개월 동안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에서부터 5인 가구 이상 35만원까지 생계비가 차등 지급된다.

둘째로는 최저생계비 1백20퍼센트 이하의 소득과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 능력이 있는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월 83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셋째로는 재산담보부융자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가운데 2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2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 평균 5백만원, 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창업 지원 3천가구로 확대

경기침체에 따라 악화된 고용 여건을 감안,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 예산을 대폭 높여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구직급여를 60일까지 연장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량실업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연장급여 예산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불하는 규모도 확대했다. 또한 실직 가정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융자 조건은 가구당 최대 6백만원까지, 연리 3.4퍼센트다.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지원도 지난해 2백 가구였던 것을 올해에는 3천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저소득 서민에 대한 직접 생계 지원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역시 유동성 지원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생계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7천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경을 통해 8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또 지역 경기침체로 운영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당초 5천억원이었던 것을 추경에서 5천억원을 더 투입해 총 1조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창업활성화자금 등 시설자금도 3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국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도 확대했다.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자 규모를 늘려 총 5천억원의 창업투자자금을 조성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에서 3조5천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지방채 인수를 확대해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고,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에게도 신용보증,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G

글 · 구자홍 기자

동아DB

학자금 대출금리 7.3%⇨5%로

20조9천억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와 1천만원을 훌쩍 넘는 대학 등록금….
교육비가 가계에 고통을 준 지는 이미 오래다. 정부는 저소득층 무상 보육지원과 함께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다각도로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보육·교육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교육'을 지목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은 저출산 심화에는 과중한 교육비도 한 몫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더 큰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은 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반대로 고소득층은 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학력과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될까 두려운 지점이다.

정부는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교육과 보육 정책이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교육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이자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중이다.

장학 예산 늘려… 내년 혜택 더 많아져

대학 등록금 1천만원시대를 맞아 정부는 올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등록금 대출 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17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등록금 대출금리를 기존 7.3퍼센트에서 5퍼센트대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민간에서 채권을 발행해 등록금 재원을 마련한 종전 방식 대신 한국장학재단이 맡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재원조달 비용이 떨어져 대출금리가 1~1.5퍼센트 포인트 낮춰진 것이다.

정부가 올해 한국장학재단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1천3백억

원이지만 내년에는 2천6백억원을 지원, 총 70만명의 대학생에게 대출 혜택이 가게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등록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연소득 1천8백13만원 이하만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 연소득 2천3백84만원 이하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의 이자 전액은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생 등록금 대출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5퍼센트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강력한 교육복지를 천명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재비 등 긴급 지원

실직 등 급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긴급 지원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위기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5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긴급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분기별로 초등학생은 17만원, 중학생은 27만원, 고등학생은 32만9천원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 또 현행 최장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지원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무상 보육 기회 확대로 20만명 추가 혜택

만 5세 이하 영·유아 무상 보육에도 발 벗고 나섰다. 올 7월부터는 차상위 41만 가구뿐 아니라 소득하위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20만명에게도 무상 보육 혜택이 돌아간다. 종전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5계층을 구분해 보육비를 차등 지급했다면, 7월부터는 3계층으로 축소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결국 총 61만 가구가 소득과 연령에 따라 월 52만~73만원의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 셈이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영아를 둔 취약계층에게도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보육비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동아DB

정부는 올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가 i-사랑카드로 보육료 내도록 바꿔

오는 9월부터는 보조금 형식으로 정부가 직접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보육료 방식도 바뀌게 된다. 정부는 'i-사랑카드' 제도를 도입해 일종의 전자바우처인 i-사랑카드를 부모에게 발급해 보육료(정부 지원금+부모 분담금 일괄 결제)를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보육료 관련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요자가 정부 보육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i-사랑카드는 신용카드를 기본으로 하되 체크카드와 전용카드도 함께 발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 보육료 지원 신청 때 함께 신청하면 되고,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카드를 받게 된다.

아이돌보미 지원 5천5백가구로 확대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 긴급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경우엔 시설 보육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정부는 수요자인 부모 중심으로 탄력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0세~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월 80시간, 연 4백80시간 이내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돌보미들은 등·하교부터 병원 데려가기, 간식 챙겨 먹이기 등의 보육 활동을 담당한다. 시간당 이용 요금은 기본 5천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이 1천원밖에 되지 않아 이용에 부담이 없다.

올해는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백퍼센트 이하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백퍼센트 이하(월 평균소득 4인가구 3백91만원 미만)로 소득기준을 완화해 좀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1천5백60 가구에서 5천5백 가구로 확대됐다.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해당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이용회원으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회원이 되면 전화나 인터넷 등록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2백32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G

글·정지연 기자

안내·www.idolbom.co.kr

7월부터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50퍼센트 인하

일해서 먹고살기도 힘든 데 몸까지 아프다면 그 서러움은 어떠할까.
정부는 서민들의 보건의료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복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방접종 비용을 민간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난해 2백15만명이었던 수혜 대상자를 올해는 3백65만명으로 늘렸다. 12세 이하 아동이 민간 병·의원에서 B형간염과 결핵,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총비용의 30퍼센트를 국가가 지원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최저생계비 3백퍼센트 이하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은 7월 1일부터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줄어든다.

동아DB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산전 진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 혜택을 받기 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주는 경우에는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기준 하위 50퍼센트 이하의 암 환자의 경우에는 올 12월부터 본인부담이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아진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취약 군 지역에는 올해 4월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지원했고, 7월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센터를 구축하는 데 42억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초음파 등 산전 진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1회당 2백25만원에서 2백70만원으로 소요 비용의 90퍼센트 수준으로 늘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기부담금 등 실질적 부담 줄여

7월 1일부터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퍼센트 낮춰줄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50만 가구에 대해 월 13억원을 경감해 연간 1백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감 대상 가구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보험료를 낮춰 부과할 예정이다.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 범위와 사용 기간도 확대된다.

고운맘 카드는 7월 1일부터 산전 진찰은 물론 출산 비용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도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하던 것이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난다. 출산 관련 진료비 사용 범위와 기간이 확대됨으로써 산모의 건강 수준 향상은 물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6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이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앞당겨진다.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 혼잡으로

동아DB

본인부담금을 감당하기 버거워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액을 낮춰줄 예정이다.

인한 금융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6월부터 각종 민원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변경신고와 이의신청, 수급권 상실신고의 경우 기존 30일 처리시한을 7일로 대폭 줄이고, 미지급연금 청구도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지만 본인부담금을 감당하기 버거워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액을 낮춰줄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경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자료와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실시하며, 경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퍼센트,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퍼센트, 도시지역은 하위 10퍼센트를 대상으로 한다. 경감 대상자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위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경감받게 된다.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출산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 범위와 사용 기간이 확대된다. 출산 관련 진료비 사용 범위와 기간이 확대됨으로써 산모의 건강 수준 향상은 물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1종,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백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토록 했다.

대부분 의료 관련 정책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운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상향 조정된다. 대형 병원의 외래 진료에 경증,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아 의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 비용의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높아진다. 외래 본인부담률 상향조정을 통해 확보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G

글 · 구자홍 기자

보금자리주택

2018년까지 1백50만가구 건설

집이 없어 겪는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긴급주거지원부터 전세자금 저리대출까지 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주거정책을 알아본다.

주거

아직도 우리나라엔 변변한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국민이 많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백6만 가구(2005년 기준)로 전체 가구의 13퍼센트에 이른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백19만 가구는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나 판잣집 같은 비정상적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4만5천2백37가구나 된다. 정부는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시행

경기침체로 인해 살던 집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에게 다가구매입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1백만~3백만원, 월 임대료 1만~10만원(시중 임대료의 30퍼센트 수준)으로, 기존 주택의 경우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 2백40만원, 월 임대료 8만원(수도권 기준 5천만원 전세주택 기준) 수준으로 제공받게 된다.

긴급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먼저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주민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이 과정에서 평균 3개월이 소요됐는데, 정부는 1개월 안에 지원되도록 관련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2백36가구가 신청해 1백4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았고, 1백32가구가 지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5백 가구를 시범 공급하고 입주 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1천5백 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129콜센터전화(129),
대한주택공사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 www.jugong.co.kr)

오는 9월 첫 공급되는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 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로 무주택 가구주만 신청 자격이 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현행 4.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해주고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하려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금리를 반액(기존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으로 인하해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4억원의 지원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우리, 하나, 기업, 신한은행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다가구매입 임대률 7천5백가구로 늘려

대한주택공사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주거를 지원해왔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전세 무이자 사업 등도 활발히 펴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해 다가구매입 임대율을 7천 가구에서 7천5백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거주기간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회로 제한된 재계약 횟수를 4회로 늘려 거주기간을 늘린 것이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해 집을 옮기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50퍼센트(약 50만원 수준)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12억원 규모로 1천60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15퍼센트 인하 공급

오는 9월부터 4대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4대 시범지구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하남시 미사동 일대로 모두 6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입주예약제도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기존의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 물량을 부르는 새 이름으로,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도심 등에 직접 건설해 공급한다. 기존 가격보다 15퍼센트 인하한 분양가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런 보금자리주택을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1백50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중 70만 가구는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으로 공공 분양하며, 나머지 80만 가구는 임대주택이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으며, 분양과 관련해 사전예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청약에 앞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청약 자격이나 절차 등의 문의는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참고하면 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부대 복리시설 개선

198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온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지은 지 오래되어 시설이 낡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없어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공포하고 하위법령 제정에 나섰다.

새로운 시행령에는 관리비 절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 복리시설 개선,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안에 운동시설, 통합경비시스템(CCTV), 복지관 등 시설이 들어서고, 복도 섀시의 교체나 신설, 주차장 설치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 특별공급 확대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확대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22일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눠 공공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특별공급은 공급량을 당초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늘렸다. 세 자녀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자 순에서 선정키로 하고, 과밀억제권역에 공급 물량을 5퍼센트 늘리기로 했다. G

글 · 정지연 기자

대한주택공사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 주거지원사업이다.

추경 2조8천억… 55만개 고용 창출

28조4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은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으로 명명됐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동아DB

산림청 녹색 일자리 근로자들이 시무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가고 있다.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대책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교육훈련 강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55만2천 개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으로 6개월간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3만3천 개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또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지원, 이른바 잡셰어링을 통해 22만1천 개 일자리의 고용 유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졸 미취업자와 실직자 등 총 33만명에게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밖에 실업급여 등 실직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휴업근로자 평균 임금 40퍼센트 지원

정부는 고용 유지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2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를 통해 22만1천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연말까지 일자리 55만2천 개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5백83억원에서 3천6백5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휴업근로자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4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도록 9백9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로써 신규 휴업근로자 6만1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동아DB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 청년, 저소득층 등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교대제 실시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각각 3분의 1씩 분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백8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일자리 55만2천 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최대 임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렸다. 당초 2만5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으나 추경 편성을 통해 3만7천명까지 지원 대상자가 늘었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25만명에게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당초 12만9천명 수준이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6만6천명으로 늘리고, 대졸 미취업자를 조교나 연구원 등으로 7천명 신규 채용하며, 2만5천명가량은 학습보조 인턴교사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취업 성공시 최대 1백만원 지급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장 1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상담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상담과 직업훈련, 단기 일자리 제공,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근로의욕과 능력을 높인 뒤, 3단계로 집중 취업알선을 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조건(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일정수준 이하(4인가족 기준 보험료 5만5백44원)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 18세에서 64세 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월 30만원씩 1년간

취업 애로계층과 중소기업 빈 일자리 등 구직,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청년과 여성가장,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을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신규채용장려금을 월 15만~60만원에서 18만~72만원으로 높였다. 취업자들의 눈높이 조절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1백11억원을 신규로 배정해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토록 했다.

실직자와 대졸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전직 실업자와 신규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규모를 14만7천명에서 16만7천명으로 늘렸다. 또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내 특별교육 프로그램인 'Stay-in-school Program' 지원을 통해 신규로 9만4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1만5천명에게 상담과 훈련, 취업 알선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게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해 10만명에게 제공한다.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련기간 중에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직업훈련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월 단위로 1백만원씩 비정규직은 3백만원 한도에서, 실업자는 6백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4퍼센트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G

글 · 구자홍 기자

소액자금 저리대출 · 창업자금 · 일자리 지원

어려울 때 정부 지원, 희망이 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취약계층에게는 창업 지원, 일자리 제공 등 자립을 돕고 있다. 위기를 희망으로 이겨낸 이웃들을 만나보자.

조애리 씨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자금난을 타개했다고 한다.

오리구이 전문점 운영 조애리 씨

"구청 특별 대출… 가뭄에 단비였죠"

경기침체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사람들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장사는 안 돼도 가게 문은 열어야 하니 하루하루가 힘겹다. 은행 빚이라도 얻고 싶지만 신용도 담보도 부족한 터라 그 문턱은 높기만 하다.

서울 구로역 인근에서 6년째 닭고기, 오리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조애리(42) 씨는 지난해 5월 구로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로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아 위기를 넘겼다. 조 씨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고 했다.

"손님이 줄어든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번져 하루에 10만원어치도 팔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집을 가게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어서 월세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쓰고 남편과 둘이 하는데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게 아닌지, 그만두면 어떻게 살지 깜깜했습니다."

은행을 찾아갔지만 집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 추가 대출이 안 된다고 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지인이 구청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곳에서 조 씨는 희망을 찾았다. 구로구청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출연해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 여력이 없어 은행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구청이 특별 보증을 서서 대출해주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금리도 3퍼센트로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조건이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작은 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나라에서 도와줘 숨통이 트였습니다. 더 많은 서민들이 이런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토바이 수리 · 판매점 운영 강석준 씨

"저금리에 서류준비까지 도와줘 감사했죠"

구로구청은 200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청, 구로구상공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 구로세무서 민원실이 한곳에 있어 한 번 방문으로 자금 융자를 비롯해 세무, 법률, 노무, 무역, 특허 등 경영상담,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구로구 내 업체의 89퍼센트는 제과점, 가내수공업, 유통업, 미용실, 세탁소, 음식점 등 소규모 생계형 업종이다. 6백억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서민경제 살리기에 큰 구실을 하고 있다.

구로2동에서 오토바이 수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강석준(44) 씨도 2년 전 구로구청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17년째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해온 강 씨는 가뜩이나 매출이 떨어져 어려운 상황에서 집주인이 건물을 팔려고 내놓자 위기에 처했다.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기자니 막막하더라고요. 장사는 자리 잡기가 힘들잖아요. 또 이런 업종은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냄새난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세를 잘 안 주거든요. 이리저리 알아보았지만 건물을 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문제는 돈이었다. 그동안 알뜰하게 모은 돈을 다 털고 아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부족했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알게 됐다.

"관공서 문턱이 낮아졌다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가는 게 참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 팀장님이 서류 준비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3천만원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됐지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당시 은행 신용대출이 9퍼센트대, 담보대출이 7~8퍼센트대였으니까 2.5퍼센트는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죠."

고등학교 졸업 후 26년째 오토바이 수리 일을 하고 있는 강 씨는 근래 몇 년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한다. 하다못해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도 수리할 일이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평생 성실을 무기로 살아왔듯 오늘도 묵묵히 스패너를 든다.

"힘들지만 더 열심히 일해야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30대 떡가게 사장님 이창준 씨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으로 사장님 됐어요"

취업과 실직을 걱정하는 젊은이도 많은데 이창준(33) 씨는 지난 5월 어엿한 사장이 됐다. 서울 청담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후문 앞에 2년 반 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떡가게를 연 것이다.

이 씨는 2006년 11월부터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떡 만드는 법을 배웠다. 만들 수 있는 떡이 1백 가지가 넘으면서 창업의지를 굳혔고, 강남구청이 사회연대은행과 손잡고 시작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5천만원의 창업지원금을 2퍼센트의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었다.

"나라에서 이런 기회를 주니 정말 고맙죠. 처음에는 창업이 막연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뒤 돈을 더 알뜰히 모으게 되었고요."

지원받은 5천만원 중 3천만원은 보증금으로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천만원은 운영자금으로 쓰고 한 달에 4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다.

사실 가게를 여는 데는 사회연대은행에서 받은 창업지원금에 가진 돈을 다 합해도 부족했기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인테리어 자재를 직접 사다 붙이는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썼다. 사정해서 권리금을 분납하고 기계 값도 잔금 결제를 늦출 수 있었다. 가게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연대은행에서 경영, 재무, 회계 등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한결 든든하다.

가게를 연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이 씨는 여유가 있어 보였다. 발로 뛰어다녀 목 좋은 자리를 얻었고, 충실히 교육받은 덕에 급하게 주문을 받아도 3시간이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일하는 데도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대학 때 전공한 디자인을 살려 멋진 떡을 만들 겁니다. 우리 떡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강석준 씨는 "관공서 문턱이 높다는 건 옛말"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창준 씨는 "나라에서 준 창업 기회가 고맙다"고 했다 .

희망근로봉사단 홍덕성 씨

“일거리도 구하고 이웃도 돕고 뿌듯해요”

경기 의왕시 희망근로봉사단 반장 홍덕성(84) 씨의 별명은 ‘맥가이버 할아버지’다. 부서진 우산, 고장난 선풍기, 망가진 자전거도 홍 씨가 만지면 금방 새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홍 씨가 소속된 희망근로봉사단은 칠순이 넘은 ‘맥가이버 할아버지’ 5명으로 이뤄져 있다. 의왕시 전 지역의 복지시설, 홀로 사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고장난 우산, 선풍기, 자전거, 전자제품 등을 무료로 수리해준다.

며칠 전에는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아름채에 찾아가 고장난 대형 선풍기 2대를 말끔히 수리해 관내 5백여 명의 노인들이 시원한 여름을 나게 됐다.

홍 씨는 “나이 80이 넘었지만 작은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힘이 남아 있는 한 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자리가 희망이라고 한다. 취업을 원하는 것은 청년들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노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3만원(교통비 등 일일 3천원 별도)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노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홍 씨를 비롯한 많은 노인들이 정부의 이런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이돌보미 김갑순 씨

“동화책 읽고 종이접기도 하는 할머니 선생님”

경기 수원시의 결혼 7년차 주부 방수현(35) 씨는 1년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첫째를 낳았을 때만 해도 괜찮았지만 둘째 나혜가 태어나고서는 혼자 두 아이를 돌보는 것이 벅차기 때문이다.

“둘째를 낳고 모유 수유 자세에 문제가 있었는지 목디스크와 척추측만증에 걸렸어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병원 한번 가는 일도 쉽지 않더군요.” 병원에 갈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 급했다. 마침 남편이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듣고 신청해보라고 권유했고, 벌써 1년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나혜를 돌보고 있는 이는 김갑순(55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씨. 이 지역에서는 베테랑 아이돌보미로 통한다. 2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 서로 적응하고 친해지는 게 좋아요. 또 혼자 있어 무료한데 이처럼 아이 엄마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보람이고요”라고 말한다.

김갑순 씨는 일하는 엄마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하며 보람을 느낀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부모가 야근,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도. 한 가정당 월 80시간, 연간 4백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5천원 선.

엄마 방 씨는 “다른 베이비시터 제도와 달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필요한 날짜에 필요한 시간만큼 도움을 청할 수 있어 편해요. 취업을 하게 되면 아이돌보미 시간을 더 늘릴 생각이에요”라고 만족스러워한다. 그는 최근에는 재취업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며 일주일에 3일, 3시간씩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가 한 달에 지불하는 비용은 3만~4만원 선.

“아이가 ‘할머니 선생님’이라 부르며 잘 따라요. 동화책도 읽어주고 종이접기도 같이 하지요. 나혜처럼 돌보는 아이가 네 명쯤 돼요.” 김갑순 씨 역시 아이돌보미 일을 하며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고 만족스러워했다. G

글 · 이혜련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정경택 기자

민생 도우미 문의전화

분야	전화번호
저소득층 생계 및 위기가구 지원, 의료 및 복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일자리 및 고용관련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1588-1919
서민 주거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대한주택공사 전월세 지원센터 1577-3399

신용회복위원회 홍보대사 탤런트 이정길

"저… 자격이 될까요?" "걱정마세요, 제가 상담해드릴께요"

동아DB

신용회복위원회 홍보대사 탤런트 이정길.

안녕하세요, 탤런트 이정길입니다. 40년 넘게 연기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많은 분들이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워크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란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부채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채무 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하거나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지원합니다. 원리금 감면에서 이자는 전액 감면을,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권에 한해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자격이 될까요?" 상담하러 온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는군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도 자격 조건일 겁니다.

자격 조건은 연체 등록 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 채무 상환 마감일을 90일 이상 넘긴 채무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런 경우(개인워크아웃)에는 1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여야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 채무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는 아직 연체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사전채무조정)에도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여야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금융지원제도나 취업안내센터도 활용하면 좋을 듯

상담을 거쳐 채무 조정 신청 자격이 인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분에게는 '소액금융지원'이라는 또 다른 혜택을 줍니다. 저소득근로자로 병원비와 같이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분들과 영세자영업자로 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이 필요한 분 등에 한해 1천만원 이내에서 무담보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부채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부족한 과중채무자에게 직업을 알선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취업안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주부들의 생생 아이디어 정책이 된다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때 장바구니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주부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서민정책은 무엇일까? 생활공감 전국 주부모니터단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다.

"보건소의 토요 근무시간을 늘려주세요"

현재 보건소는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초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 엄마들은 이 혜택을 누리기가 힘들다.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평일에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소는 한 달에 한 번만 토요일 오전 근무를 통해 직장인 엄마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대다수 직장인 엄마들은 무료접종 혜택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병원을 찾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보건소를 이용하면 무료인데 BCG 외 7종 기본접종을 민간병원에서 할 경우 약 50만원이라는 큰돈이 든다.

현행 토요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보건소가 격주 토요일 오전 근무나 일주일에 한 번은 평일 야간 근무를 시행한다면 직장인 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동아DB

보건소는 관내 영·유아에게 무료로 기초 예방접종을 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주민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지방세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처럼 꼬박꼬박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매년 3월과 9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일일이 금융기관을 찾아야 해서 번거롭기 짝이 없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아울러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재산세나 취득세처럼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했으면 한다.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구내식당 이용 가능했으면…"

희망근로 사업을 시작한 지 2주가 되어간다.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데 대해 큰 점수를 주고 싶다. 하지만 급여의 30퍼센트를 기프트 카드로 준다는 데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시청 산하기관인 출장소에서 일하면서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보통 식권(2천원)을 사서 먹는데, 불현듯 기프트 카드를 이용해 구내식당 결제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많은 희망근로자들이 구청이나 시청, 주민센터 일을 하고 있으므로 구내식당 이용률도 높아질 테고, 또 식권은 보통 한 달치를 구입하므로 한 달에 한 번 결제는 번거로움도 적을 것이다.

"상가 주변 쓰레기 처리함 설치해주세요"

아파트에는 분리수거함이나 종량제 쓰레기 처리함이 있고 또 쓰레기 차량이 와서 제 시간에 수거해간다. 하지만 주택가 특히 도로에 면한 상가 주변은 그렇지 못하다. 전봇대 주변에는 악취를 풍기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들이 보기 흉하게 쌓여 있게 마련이다.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정해진 장소에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과 같은 대형 처리함을 두면 어떨까. 색깔을 통일해 깔끔하게 처리한다면 수거도 쉽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을 것이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담을 수 있는 길거리 대형 처리함 설치를 검토해주기 바란다.

"두 배로 힘든 쌍둥이 육아를 지원해주세요"

저출산시대를 맞아 출산장려책으로 많은 제도들이 나오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도 해주고, 셋째아이를 낳은 가구는 양육비용도 지원받는다. 하지만 쌍둥이들의 경우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양육비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특히 요즘은 쉽게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인공시술을 이용하다 보니 쌍둥이 출산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쌍둥이들에 대한 지원도 다른 다둥이들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양육비의 일부 지원이 어렵다면 만 24개월까지 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무이자로 지원금을 매월 분할 상환하는 제도는 어떨까 싶다.

일러스트 · 이우정

"보육비 지원 대상과 기준을 현실화해주세요"

정부는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육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보육비 지원의 경우 몇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제도는 보육비 지원을 신청자의 전체 재산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때 전체적인 소득에는 보유주택과 차량이 포함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적어도 오래된 주택 한 채만 보유하거나, 노후 차량 한 대만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보육비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전세자나 월세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다 보니 아이들을 모두 나랏돈으로 보육시설에 맡기고, 엄마는 문화센터를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따라서 보육비 지원 대상 선정에 따른 기준을 더 명확히 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소유주택도 그 기한에 상한선을 두고, 생계에 필요한 화물차나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는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소형차라도 외제차라면 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한다.

"모든 세금을 한 통장으로 뚝딱"

각종 국세나 지방세, 자동차세 등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렇다 보니 세금을 납부하려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납부 등 세금의 성격에 따라 번거롭게 움직여야 한다. 만약 국가가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개인별 납세통장 번호를 등록하도록 해 신고한 통장에서 세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세금 징수에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납세자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이리라 생각된다. 또 한눈에 세금납부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일 것이다. G

정리 · 정지연 기자

위 내용은 생활공감 전국 주부모니터단 여러분이 자체 회원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제안한 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게시판 활동원칙에 따라 익명으로 발췌해 게재했습니다.생활공감 전국 주부모니터단은 주부들의 지혜와 생생한 경험을 정책 입안에 적극 반영하는 일종의 '정책 프로슈머' 집단입니다. 지난 2월 26일 출범, 전국 3천41명 주부가 참여 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천일의 약속' 깨어나라 4대강아!

물부족 · 물오염 · 물난리 없는 내일을 위해 4대강 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14조 원 투입, 일자리 19만 개 창출!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4대강 살리기!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물의 가치가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강변, 맑은 물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동아DB

연평해전 10주년 리멤버 357

6·25전쟁, 연평해전 등에 참전한 많은 군인들이 구국의 큰 뜻을 품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특히 2002년에 일어난 제 2 연평해전에서는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침몰하는 한편 군인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정부는 국민과 함께 그러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있다. 그들의 뜨거운 애국충정과 아름다운 희생정신은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추진동력이자 한반도 평화수호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보훈병원을 가다 – 강원도 김화전투 치른 이인모 할아버지

“전우의 시신 밑에 숨어 살았어요”

6·25전쟁은 국토를 남북으로 갈라놓았을 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터에서 천운으로 살아남은 이들조차 지금까지 씻을 수 없는 상흔과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서울보훈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6·25전쟁 참전 용사들에게서 당시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이인모 할아버지는 전쟁에 징발돼 결혼 1개월 만에 아내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전쟁 중 포탄 파편에 맞아 찢어진 뱃살이 끝내 봉합되지 않아 남은 상처(오른쪽).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처음 6·25전쟁에 징발됐을 때부터 두렵고 무서웠어요. 어느덧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당시의 일이 지금도 잊히지 않네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자리한 서울보훈병원에서 만난 이인모(79) 할아버지는 6·25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 2월 집에서 농사일을 돕다 징발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21세였다. 더구나 결혼한 지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새신랑이었다.

집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전쟁터로 큰아들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두 눈엔 걱정이 잔뜩 서려 있었고, 이제 막 시집온 아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돼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기필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말로 가족을 안심시켰다.

이후 5개월 가까이 군사훈련을 받은 그는 1951년 7월 수도사단에 배치되자마자 강원도 김화로 진격했다. 그 사이 그의 계급은 하사가 됐다. 김화에서는 남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공군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군의 격전이 한창이었다.

싸움은 매일 엎치락뒤치락했다. 중공군에 맞서 함께 싸우러 나가는 전우들도 매번 바뀌었다. 전투가 벌어지면 대부분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 달 가까이 전투를 벌이던 중 이 하사는 적군이 던진 포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포탄이 쏟아져 날아오면 어떻게든 숨어야 했어요. 숨을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땐 옆에 있던 전우의 시신 밑에라도 몸을 숨기곤 했는데 그날은 제대로 맞았죠. 얼굴이 화끈거려 왼쪽 뺨을 만져보니 피와 살이 섞여 묻어나오더라고요.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순간 ‘이제

야 후방에 갈 수 있게 됐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사방에서 포탄이 터지면 지옥이 따로 없었으니까요."

계속된 포탄 투하로 풀 한 포기 남아 있지 않은 벌거숭이산을 내려오니 부상한 군인들이 떼지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리를 잃은 군인, 팔이 없는 군인 등 하나같이 치료가 다급해 보이는 사람들뿐이었다. 이들을 후송하기 위해 헬기 한 대가 착륙하려 하자 서로 먼저 오르려고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헬기는 그들을 뒤로한 채 이 하사만 끈으로 매달고 서둘러 병원으로 옮겼다.

"처음 부상을 당했을 때는 몰랐는데 왼쪽 턱 부분은 물론 입술과 잇몸, 치아까지 다 뭉개져 없어졌어요. 팔이나 다리 부상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서 먼저 후송했다고 하더군요. 저를 구출한 미군 장교는 위생병이 압박붕대로 제 얼굴을 친친 감아주자 '이 하사, 다이조브, 다이조브' 하고 말했어요. 우리말은 몰랐던지 이제 괜찮다, 살았다는 뜻으로 '다이조브'라는 일본말을 하더라고요."

고향인 경북 김천에서 비보를 들은 가족들은 처음에 그가 사망한 줄로 오해했다. 전쟁터에서 날아온 편지가 그의 필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가 죽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가 참전한 후 매일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무사귀환을 염원하던 그의 아내 이종순(76) 씨도 "심하게 다치긴 했지만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말한다.

21세 때 징발… 강원 김화서 포탄 파편 맞아 후송

처음 보름 동안은 수도육군병원에서 치료받다 경주18육군병원을 거쳐 부산5육군병원으로 옮긴 이 하사는 그곳에서 2년 뒤 제대했다. 다행히 그 사이 수차례의 수술 끝에 함몰됐던 얼굴에 살도 붙고 치아도 생겼지만 부상 후유증은 계속됐다. 전처럼 아무 음식이나 씹어 먹을 수도 없었고 말도 어눌해졌다. 시력도 손상돼 한때는 실명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포탄 파편에 맞아 찢어진 배의 상처가 문제였다. 이 부위는 여섯 차례의 수술로도 봉합되지 않았다. 처음에 부상 정도가 심각한 얼굴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 찢어진 뱃살을 꿰매지 않고 두 달 동안 방치한 탓이다.

이인모 할아버지는 상의를 들어 상처를 보여줬다. 배 한가운데가 성인 남성의 주먹만한 크기로 움푹 패어 있었다. 그 부위는 두꺼운 살 대신 화상을 입은 피부처럼 얇은 표피로 싸여 있어 매우 아파 보였다.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아프다는 의식을 못하는데 힘든 일을 하면 위가 튀어나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그래도 다른 후유증은 많이 좋아졌다.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 의술이 발달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제대 후에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 시력을 되찾고,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얼굴도 완전하진 않지만 정상에 가까워졌고요. 제대 후 몇 년간은 몸이 불편해 농사일밖에 거들 수 없었지만 건강이 상당히 회복된 뒤에는 정부 도움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일했어요."

그는 전쟁의 상처를 이겨내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정년까지 26년간 근무한 것도, 슬하의 5남1녀를 모두 반듯하게 키워낸 것도 아내의 극진한 뒷바라지 덕이라고 했다. 또한 옆에서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아내에 대해 "아이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한 어머니상'을 비롯해 무수한 상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핏빛 전쟁으로 신혼의 단꿈이 산산조각난 이인모 할아버지 부부는 "전쟁은 승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아내인 이종순 할머니는 "제대 후 남편 얼굴에서 고름이 줄줄 나오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시어머니께서 합방을 할 수 없게 했다. 그래서 몰래몰래 아이를 갖다 보니 6남매를 낳았다"며 웃었다. 또한 "아이들을 힘겹게 키워서인지 다들 효성이 지극하다. 남편 건강이 다시 안 좋아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어서 회복돼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핏빛 전쟁으로 신혼의 단꿈이 산산조각난 이들 노부부는 "전쟁은 승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서울보훈병원에는 이인모 할아버지처럼 전쟁터에서 당한 부상 후유증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

“딸아이 눈에 밟혀도… 그래도 전쟁터로”

백마전투서 분대장 활약 화랑무공훈장 서훈 곽완 할아버지

곽완 할아버지는 강원 철원군의 백마고지에서 용맹하게 싸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서울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곽완(82) 할아버지는 “6·25 전쟁이든 연평해전이든 전쟁은 양측 모두에 피해를 끼치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며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징글징글하다”고 말했다. 1952년 그는 충남 금산에서 농사를 짓다 6·25전쟁에 징발됐다. 당시 그에겐 어여쁜 아내와 태어난 지 45일밖에 안 된 딸이 있었다.

“가족을 두고 떠나려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하도 예뻐서 누가 업어 가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 딸아이 얼굴도 자꾸 눈에 밟히고. 그래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장에 나갔어요.”

그의 소속은 9사단 29연대 1대대 3중대 화기분대였다고 한다. 화기분대는 기관총을 앞세우고 강원 철원군의 백마고지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밤낮없이 싸웠다. 낮에는 우리 군이 백마고지를 차지하고, 밤에는 중공군이 차지하는 싸움이 수없이 반복됐다.

“백마고지 쪽에는 철원평야와 김화평야가 펼쳐져 있어 이 곡창지대를 빼앗기면 피해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백마고지는 더더욱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렇게 1년 이상을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전우를 사귈 수도 없었어요. 전투에 임할 때마다 대부분이 죽거나 다쳐서 다신 볼 수 없었으니까요.”

30만 발의 포탄이 터진 백마고지 전투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며 용맹하게 싸운 그는 어느덧 이등병에서 분대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보초를 서던 그의 머리 위로 포탄 파편이 떨어졌다. 즉시 후방으로 이송됐지만 상처가 깊어 쉽게 치료되지 않았다. 결국 계속 병원 신세를 진 그는 제대 후 충남 금산의 아내와 딸 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에겐 가족 상봉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조차 없었다. 부상의 후유증과 가난이 또 다른 장벽처럼 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마고지 쪽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어 곡창지대를 빼앗기면 피해가 상당했어요. 1년 이상을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전우를 사귈 수도 없었어요. 전투에 임할 때마다 대부분이 죽거나 다쳐서 다신 볼 수 없었으니까요.”

“보훈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 머리의 상처와 통증은 많이 사라졌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마땅한 돈벌이가 없었어요. 처음 얼마간은 농사를 짓다가 똥지게를 져서 먹고살았어요. 제대 후에 딸 둘과 아들 다섯을 더 낳았는데 아비 노릇을 하려면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곽완 할아버지는 지난 4월, 전투에 참가해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만 주는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무공훈장은 벽걸이로 만들어 가보로 보관하려 맡겨뒀고, 지금은 함께 받은 시계밖에 없다”며 시계를 찬 손목을 내미는 할아버지의 두 볼이 사춘기 소년처럼 발갛게 상기됐다.

인터뷰를 마치며 할아버지는 “6·25전쟁 때는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징발돼 많이 죽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지만 그런 악몽은 다시는 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게 있다”고도 했다. 바로 군번이었다. 할아버지는 백마고지에서 싸우던 20대로 돌아가 자신의 군번인 ‘0663412’를 힘차게 외쳤다. G

글·김지영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당신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보훈병원 장기 입원 보훈자 돕는 민간 자원봉사자들

서울보훈병원에는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는 보훈자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다. 매주 이곳을 찾는 적십자 봉사단과 2백60여 명에 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가 그들이다.

서울보훈병원에는 8백4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그중 80퍼센트 이상이 군인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나이 들어서도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장기 입원 환자가 상당수다.

이들의 간병은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이 맡고 있지만 적십자 봉사단원과 자원봉사자들 또한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적십자 봉사단원들은 병원 내에 따로 도서관을 만들어 책을 대여해주거나 장기, 바둑을 둘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봉사단원들은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가 하면 환자용 거즈를 소독하기 편하도록 포장하기도 한다. 21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한 적십자 봉사단원은 "책을 빌리러 오시던 6·25전쟁 참전 용사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며 "지금도 하루 평균 1백20명에서 1백50명이 다녀가신다"고 전했다.

병원 내 사회사업실에 이름을 올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들도 2백60여 명이다. 구청회보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거나 다른 자원봉사자의 소개로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병원 안내데스크, 약국, 체육관, 무인수납기 등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때때로 이들은 웃음치료, 기공체조, 이·미용 봉사에도 나선다.

적십자 봉사단원이 보훈병원 내 도서관을 찾은 환자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온 김덕자(58) 씨는 "아이들이 장성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우연히 반상회보에 실린 모집공고를 보고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하루 3시간 정도 봉사하는데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한 "환자들에게 드리는 것보다 얻어가는 것이 많다"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6·25전쟁부터 연평해전까지 대한민국 전쟁史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해 일어났다. 북한은 그해 6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남침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한편 공격 부대를 전방으로 전진 배치하고 정찰 명령과 전투 명령을 하달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군의 심상치 않은 동태에도 6월 24일 그동안 발령해온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장병들에게 외박과 휴가를 줬다. 그 바람에 전선이 무방비 상태가 되자 북한이 기습적으로 도발한 것이다.

전 국토를 초토화한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3년 1개월여 만에 끝났지만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인구는 약 71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도 엄청났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25전쟁의 인명피해 현황은 전사자와 부상자, 실종자, 포로를 모두 합쳐 77만6천3백60명에 달한다. 이 중 62만1천4백79명은 한국인이다. 전사나 사망한 사람은 13만7천8백99명, 부상자는 45만7백42명에 이른다. 당시 남한 인구가 2천1백만명 정도였으니 그중 30퍼센트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셈이다.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1999년 6월 15일 벌어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6월 29일에 일어난 제2연평해전은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긴 마찬가지였다. 제1연평해전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한국 영해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한국 해군 고속정이 선체를 충돌하는 방법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였다. 이 해전으로 북한 해군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대형 경비정 선체가 대파했으며, 중형 경비정 2척과 소형 경비정 2척이 파손됐다. 반면 우리 해군은 초계함 1척의 기관실과 고속정 4척의 선체 일부가 파손되고 장병 9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

제2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와 한국 경비정에 선제 기습 포격을 가하면서 시작됐다. 북한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지만 인근 해역에 있던 해군 고속정과 초계정이 합류하면서 교전은 25분 만에 끝났다. 이 해전으로 북한 해군의 대형 경비정 1척이 대파했으며 우리 해군의 고속정 1척이 침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보았다.

윤영하함으로 명명된 고속함.

잊지 말자, 연평해전

연평해전 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소리 없는 영웅들이었다. 제 1차 연평해전 10주년을 맞아 새로 건조한 고속함을 '윤영하함'으로 명명하는 등 연평해전을 재평가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6월 3일자 〈중앙일보〉 1면에 인상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7년 전 그 바다, 윤영하가 돌아왔다….' 윤영하(해사 50기)를 비롯한 6인의 전사(戰士)는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한일월드컵 3, 4위 결정전이 열리던 2002년 6월 29일 함정과 함께 분사(憤死)했다.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더라도 공격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을 따르다가 북한 경비정의 함포 사격을 받아 배가 침몰한 것이다. 그들이 탔던 배가 357 고속정이었다.

5년쯤 지나 신형 4백40톤급 유도탄 고속함이 진수에 들어갔다. 해군은 이 배에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357 고속정 정장 윤영하소령(전사 후 소령으로 추서)의 이름을 붙여 연평해전을 기린 것이다.

2007년 6월 28일 부산의 한진중공업 부두에서 열린 윤영하함 진수식에서는 윤 소령의 해군사관학교 선배이기도 한 아버지 윤두호 씨(해사 18기)가 참석해 눈시울을 붉혔다.

해군은 윤영하함 초대 함장에 1차 연평해전에 참전해 승리한 안지영 소령을 임명했다. 안 소령은 윤 소령의 해사 3년 선배로 1999년 6월 15일 북한 경비정들과 1차 연평해전을 치렀다. 당시 대위로 325 고속정 정장(艇長)이었던 안 소령은 338 고속정과 함께 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을 들이박는 전법으로 맞서 물리쳤다.

목숨을 던져서라도 NLL을 지키려 한 안지영 소령을 윤영하함장에 임명한 것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후 윤영하함은 삼성탈레스에서 개발한 전투체계를 탑재해 전투능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쳤다. 윤영하함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함이라는 점이다. 상대 레이더에는 같은 크기의 배보다 훨씬 작게 잡힌다. 그런데 1천2백 톤급 초계함에 탑재하는 76밀리 함포와 미제 하푼(Harpoon)보다 탁월한 국산 대함(對艦) 미사일 '해성(海星)'을 달고 있다. 크기는 작은데 은밀하고 검술이 뛰어난 '닌자(忍者)'가 바로 윤영하함인 것이다.

현재 STX조선소 등에서는 윤영하 소령과 함께 분사한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와 박동혁 병장의 이름을 붙일 고속함이 건조되고 있다. 이 고속함이 완성돼 실전 배치되면 NLL은 불안의 바다가 아니라 철벽의 바다가 될 것이다.

동아DB

6월 15일 1차 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서 해군 장병들이 묵념하고 있다.

'리멤버 357', 우리는 윤영하와 장병들을 해신(海神)으로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역사의 부활이지 개인의 부활은 아니다. 연평해전을 겪은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의 바다에서 떠돌고 있다. 특히 6인의 전사자 유가족의 마음은 고통의 바다를 맴돌고 있다.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 씨는 고속정 정장을 마치고 대위로 전역했다. 일찌감치 해군을 떠났지만 그는 '선진국에서는 해군이 1등이다. 해군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신사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바다에 큰 관심이 없었던 큰아들에게 해군사관학교를 권했다.

생존자 · 유족 등에 마땅한 예우 해야

아들이 합격해 생도가 되고 소위가 되고, 중위를 거쳐 다이아몬드 세 개를 달고 고속정 정장이 됐을 때 그는 참으로 든든했다고 한다. 아들은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이루지 못한 그의 꿈에 도전하는 대행자가 됐다. 이러한 아들이 최전선에서 한일 월드컵이 평화롭게 열리게 하는 일을 하다 전사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다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 뭣 하겠소.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준 해군이 고맙고, 국가 차원에서 보훈행사를 열어준 국민과 정부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군의 사기를 올려줘야 합니다. 윤영하함이 생겨남으로써 해군의 사기는 물론이고 국군의 사기도 올라갔다고 봅니다. 아들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소. 지금은 보훈연금을 받게 해줌으로써 여전히 기둥 노릇을 하고 있어요."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종선 씨는 2차 연평해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풍조에 크게 실망해 조국을 떠난 적이 있다. 남편이 전사하기 전 그는 남편과 함께 살 관사(아파트)에 입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입주일이 코앞에 닥쳤을 때 남편이 전사했고, 기다리던 관사도 날아가 버렸다. 남편이 전사해 더 이상 군인이 아니기에 관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이런 대한민국이 싫어 미국으로 날아가 3년간 힘겨운 삶을 살다 돌아왔다. 그러는 사이 연평해전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해군 차원에서 치르던 2차 연평해전 추모제가 국가 차원으로 격상돼 국무총리가 참석하게 됐다. 김 씨는 국가보훈처가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학비를 지원받아 대학에 입학했다. 확실히 세상은 바뀐 것이다.

음지가 양지 됐다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차 연평해전 때 325 고속정에서는 안지영 대위와 조준행 하사를 비롯해 16명이 총상을 입었다. 방탄조끼와 철모 덕분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것이다. 2차 연평해전에서는 6명의 전사자 외에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고통은 생존자에게도 강하게 남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다. 상처를 볼 때마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

역사는 바꿔 쓸 수 있지만, 개인의 고통은 기쁨으로 쉬 바꿔지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조차 소홀히 했다. 훈장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있다.

1차 연평해전에 참여한 안지영 대위에게는 2등급(을지), M-60을 발사해 사태를 잠재운 영웅 조준행 하사에게는 5등급(인헌) 무공훈장이 수여됐다. 2차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3등급(충무), 4등급(화랑) 무공훈장이 추서됐다. 부상자들에게는 이보다 낮은 등급의 대우가 주어졌다.

북핵 위기와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를 위해 몸 바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볼 때 우리의 안전은 더욱 공고해지기 때문이다. G

글 · 이정훈(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명복을 빕니다〉 제2 연평해전 지휘관 정병칠 전 제독 별세

2002년 6월 29일 일어난 제2 연평해전 당시 해군 2함대사령관으로 해전을 총지휘했던 정병칠 예비역 소장(해사 28기)이 6월 18일 별세했다. 향년 57세. 함대사령관과 합참 전력기획부장, 해군 군수사령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 전 제독은 보국훈장 천수장, 대통령 표창, 국방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6·25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최후의 1인까지 가족 품으로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60년이 흘렀지만 우리 산야에는 아직도 13만여 명의 6·25전쟁 전사자들이 거친 들풀 아래 쓸쓸히 묻혀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나라의 부름을 받고 목숨 바친 그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우리는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 등 먹고 사는 데 급급한 나머지 오늘 이 나라를 있게 한 호국의 얼들을 차디찬 전쟁터의 참호 속에 수십 년 동안 방치해왔다.

남의 것을 빌렸을 때는 아무리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도 깨끗이 닦아 고마운 마음으로 돌려주는 것이 예부터 내려온 우리의 미덕이다. 하물며 국민의 자식을 빌린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그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으며, 유사시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헌신적인 애국심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다행히 2000년부터 뒤늦게 시작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이 어느덧 10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3천여 명의 전사자가 그토록 그리던 햇빛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더 찾아야 할 13만여 명에 비하면 그동안의 성과는 초라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더욱이 우리가 원치 않은 전쟁을 준비 없이 치른 탓에 전사자 매장 관련 자료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참전용사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사자 매장 장소를 알고 있는 6·25 세대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을 떠나고 있고, 국토개발 가속화에 따라 전투현장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전사자 직계 유가족의 사망도 늘어남에 따라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의 디엔에이(DNA) 시료 채취 참여도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다. 이제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앞으로 5년간의 노력 정도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 주민 제보와 유가족 협조 절실해

만약 이 시기에 범국가적 노력이 집중되지 못한다면 결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우리는 호국의 얼을 땅속에 가두고 지내는 부끄러운 국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일은 6·25 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 세대의 노력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빚을 후대에 넘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6·25 세대와 직계 유가족이 살아 있을 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지난해 8월 범정부 차원의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6월 현재 발굴 실적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상회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에 산재한 전사자의 유해 소재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지역 주민의 제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도 전사자 신원 확인에 필요한 DNA 시료 채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는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각종 공사나 영농활동 도중 전사자 유해를 발견했을 때도 바로 신고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올해로 6·25전쟁 발발 59주년을 맞았다. 전사자는 말이 없다. 다만 오늘도 비바람 속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릴 뿐이다. G

글 · 박신한(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동아DB

지난 3월 충남 금산군 백암산 일대에 투입된 장병들이 유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수칙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준수합시다!

가리고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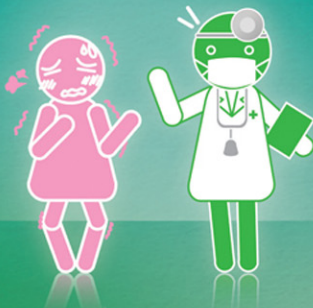
사용한 화장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씻고

손은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자주 씻고

신고하고

37.8℃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하거나**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검색 www.cdc.go.kr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로 선출된
전병성 기상청장은 12월 발사될 기상위성이
기상 예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 된 전병성 기상청장

12월 한국 첫 기상위성 발사 최소 8분 간격 관측 가능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로 전병성 기상청장이 당선됐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기상 기술력과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올해 1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도 앞두고 있다. 전 청장을 만나 기상청의 중점사업과 계획을 들었다.

지난 6월 3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회에서 전병성(53) 기상청장이 집행이사로 당선됐다. 2007년 한국인 최초의 집행이사로 선출된 정순갑 전 기상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전병성 기상청장은 정 전 기상청장의 퇴임으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전 기상청장의 당선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기상 기술력과 기상 인력 교육 기여도를 다시금 인정받은 계기라 할 수 있다.

WMO 집행이사 당선을 축하합니다. WMO에서 한국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WMO는 1백88개 회원국이 소속한 국제협력기구로 우리나라는 1956년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는 WMO 가입 이후 전문인력 교육이나 기상 기술 전수, 고가의 장비 원조 등 많은 도움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받는 협력에서 주는 협력으로 중심이 이동됐습니다.

기상청은 1998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에 기상 기술을 가르치고 기후 예측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현지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선진국들도 한국의 기상 인프라와 기술을 인정하고 있지요.

기상청의 업무 현황과 중점사업 등이 궁금합니다.

1천2백91명의 전 기상청 직원이 서울 본청과 5개 지방기상청(부산, 광주, 대전, 강릉, 제주), 국립기상연구소, 항공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와 50개소의 기상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5백44개의 지상관측망을 비롯해 라디오존데 고층관측망, 기상레이더, 해양기상관측부 등을 통해 기상을 관측하고, 이를 토대로 기상예측과 예보를 하고 있지요.

동아DB

기상청은 기상정보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과 예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상청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상청 업무 전반을 진단하고 선진국 기상정책 노하우를 전수해줄 외국 전문가 영입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정교한 수치예보모델 운영을 위해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사업도 추진 중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백조원 정도가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중요성에 비해 기상청 예산은 다소 부족해 아쉽습니다. 올해 기상청 예산은 정부예산의 0.1퍼센트인 2천2백여 억원에 그칩니다. 국민소득과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최소 연 예산 5천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구가 더워지면 홍수와 아열대성 질환이 증가하고 농작물 재배 패턴도 변화하는 등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 한반도 기온이 언제, 어느 정도 오르는지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해 국민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농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기후변화 감시 역량을 대거 확충하고, 독자적인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또한 2010년 제32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를 부산에 유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우리나라가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는 1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상위성이 발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위성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우리나라 첫 기상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은 기상, 해양, 통신탑재체가 실린 다목적 위성입니다. 총 개발비 3천5백억원 규모로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2003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에는 30분 간격으로 일본의 위성자료를 받아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야간에도 관측 가능한 우리 위성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최소 8분 간격으로 관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상예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 인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기상위성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국가 위상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기상정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확해야 합니다. 기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일 계획은 있습니까.

기상정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여전히 예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신을 받는다는 점이 안타깝지요.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사실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예보 정확도가 90퍼센트를 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지형이 복잡해 공기의 움직임이 활발한 여름철 일기예보는 더욱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청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최신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전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정보를 국민에게 빨리 업데이트하고, 예보 내용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올 여름은 무더운 날이 많고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에도 빠르고 정확히 기상예보를 전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기상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농촌진흥청 홍보대사 국악인 김성녀

"얼쑤! 신명난 농촌 함께 만들어요"

농촌은 우리 민족문화와 혼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다. 농촌진흥청은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통해 생명과 환경, 전통문화를 농촌사회 통합의 윤리이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홍보대사 김성녀입니다. 저는 그동안 연극, 뮤지컬, 국악, 마당놀이 등 다양한 연기활동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었는데요, 특히 국악과 마당놀이 같은 우리 소리를 바탕으로 한 공연을 통해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아와서 늘 감사한 마음이랍니다.

한바탕 흥과 신명이 어우러지는 마당놀이와 국악은 우리의 전통문화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전통문화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농촌에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곳, 우리 문화와 우리 혼의 뿌리가 있는 농촌이 더 살기 좋고 더 희망찬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생명과 환경, 그리고 전통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자립형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립의지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녹색성장과 관광·레저 등의 분야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농촌, 잘사는 농촌, 희망과 자립의 농촌을 위하여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농업인에게는 농업과 농촌사회 발전 주체로서의 공동체적 자립정신을 확산시키는 한편 웰빙 욕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국민에게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과 농촌의 환경자원을 보존하고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즉 CACK (Clean Agri-culture Clean Korea) 운동입니다.

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폐농기계, 폐농자재 등의 처리를 지원하고, 꽃길과 마을 탐방로를 만드는 등의 농촌 환경 가꾸기를 통해 깨끗한 농촌 생활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쾌적한 농촌마을이 조성되면 농촌 어메니티(Amenity)가 살아나 농촌마을은 국민 휴양지나 녹색체험 공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메니티란 다양한 생물종, 생태계, 경작지, 오래된 건축물, 농촌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나 전통 등 사람들에게 휴양적, 심미적 가치를 제공해주는 농촌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말합니다. 즉 농촌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전한 농축산물 만들기'인데요, 친환경 농업기술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원을 줄이는 자연순환 농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들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안전한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위한 생산기반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단지를 도시민, 소비자의 농사체험 및 학습의 장으로 활용해 도시민들이 안전 농산물 생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지요.

세 번째는 바로 '농업인 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과 리더십 배양을 위해 민간 농업인 학습단체 중심의 자율적 운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율적 공동체정신을 회복함으로써 미래 농업과 농촌의 희망 의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우리 농촌에는 '향약'과 '두레' '상부상조' 등의 협업체계가 있었죠? 농촌진흥청은 농촌의 '자연 및 생명존중 사상과 협업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생명과 환경, 전통문화를 농촌사회 통합의 윤리이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과 농촌의 녹색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 농업선진국의 농업개혁 과정과 농업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녹색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과 농촌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 필수과정에 '녹색성장 기반 문화자원의 산업화' 방안을 반영하고, 민간 농업단체에 대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시작단계에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한국4H본부 등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도하지만, 점차 범농업인단체, 품목별 조직, 민간단체 등으로 넓혀갈 예정입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농업인에게는 농업과 농촌사회 발전 주체로서의 공동체적 자립정신을 확산시키는 한편 웰빙 욕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국민에게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자립의지 확산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6월 중에 농업인 단체와 시범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 실천의 날'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현장지원 체계를 갖춰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 7월에는 품목별 농업인 단체와 환경농업단체,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하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실천본부'를 결성해 민간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시범마을 자매결연, 실천과제 기술지원, 연말 경진대회 개최 등 협력사업도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농업과 농촌에 희망과 신명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만이 아닌, 우리의 희망찬 농업과 농촌을 알리는 진정한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문의 · 푸른농촌희망찾기운동실천본부 TF팀(농촌진흥청 대외협력팀) 031-299-2666

동아DB

1 '제1회 생활공감 녹색기술 대전' 개막식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홍보대사 김성녀 씨. 김 씨는 중앙대 국악대학 학장이기도 하다.
2 농업과 농촌의 환경자원을 보존하고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동을 펼친다.

사이클 경기는 경기 장소에 따라 트랙과 도로로 구분한다. 도로 경기는 경기 날수에 따라 '원 데이(One Day)' 레이스와 투어 경기로 나뉜다. 원 데이 레이스는 말 그대로 하루에 경기가 끝나 승패가 가려지는 경기를 말한다. 투어 경기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다양한 특성의 스테이지(구간을 의미) 코스를 달리며 종합우승을 다투는 경기다. 투어 경기는 매일 치러지는 스테이지에서 우승자가 나오기 때문에 참가하는 모든 팀이 스테이지 우승을 노린다. 물론 최종 승자는 전 구간을 가장 짧은 시간에 달린 선수가 된다.

자전거는 잘 몰라도 랜스 암스트롱을 아는 사람은 많다. 암을 극복한 그가 도전해 7연패라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대기록을 세운 무대가 바로 스테이지 경기인 '투르 드 프랑스'다.

투르 드 프랑스는 매년 7월 약 3주에 걸쳐 3천5백 킬로미터가 넘는 프랑스 전역을 사이클로 달리는 경기. 이탈리아 일주 경기인 '지로 디 이탈리아', 스페인 일주 경기인 '부엘타 에스파냐'와 함께 세계 3대 사이클 투어로 꼽힌다.

이처럼 스케일 크고 박진감 넘치는 투어 경기가 우리에게도 있다. 바로 '투르 드 코리아'다.

2007년에 열린 '투르 드 코리아 2007'은 랜스 암스트롱을 초청해 언론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08년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첫 스테이지를 일본에서 개최해 화제가 됐다. 2008년까지는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동호인이 참가하는 스페셜 경기가 함께 열렸으나 올해는 선수만 참가했다. 지난 4월 8박 9일간 열린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서 동호인을 위한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투르 드 코리아, 매일 도시 이동하며 박진감 넘치는 질주

6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막식을 올린 '투르 드 코리아 2009'는 열흘간 총 1천4백11킬로미터를 달리는 대회다. 구간은 서울과 공주, 정읍, 강진, 여수, 거창, 구미, 단양, 양양, 춘천의 10개 도시를 지나도록 설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녹색성장에 앞장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긍정적인 기능을 부각하고 참가 선수들의 열정을 알리는 것이 이번 대회 개최의 취지였다.

투르 드 코리아 2009에 출전한 세계 각국 선수들이 우승 고지를 향해 힘찬 질주를 시작하고 있다.

열흘간 1천4백11킬로미터 '녹색 일주'

국제 도로 사이클 경기인 '투르 드 코리아 2009'가 지난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띤 경쟁을 펼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 11개국에서 21개 팀, 2백1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9박 10일간 총 1천4백11킬로미터를 달린 '자전거 축제'를 정리했다.

매일 도시를 이동하며 달리는 스테이지 경기지만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린 대회 첫날과 마지막 날은 크리테리움이라는 경기가 열렸다. 크리테리움은 교통이 통제된 순환 코스를 반복해 도는 것으로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3킬로미터의 코스를 첫날은 7주회, 마지막 날은 20주회를 달렸다. 승리를 위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첫날 우승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팀 네오텔의 놀란 호프먼 선수였다. 호프먼은 팀 동료 장선재의 도움으로 서울시청의 박선호를 3위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고, 투르 드 코리아 2007 우승자 박성백은 2위에 올랐다.

정부의 자전거산업 부흥 의지와 건강, 친환경, 경제성을 지닌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투르 드 코리아 2009는 뛰어난 실력의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통해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자전거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구간 우승 상금 2백16만원을 받은 호프먼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출전한 투르 드 코리아 첫 스테이지에서 우승해 기쁘다. 오늘의 우승은 한국 최고의 장선재 선수와 함께 팀플레이를 해서 이뤄낸 결과라 더 값지고 특별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10스테이지인 서울 올림픽공원 크리테리움 경기에서 우승한 서울시청의 박선호선수(가운데).

이번 경기에 걸린 총 상금은 1억2천만 원. 매 구간 우승자에게 2백16만9천원, 2위에게는 1백8만원, 3위에겐 54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모든 스테이지를 마친 이후 기록이 가장 좋은 개인종합 우승자에게는 1천84만원의 상금이 추가로 주어졌고, 단체종합 우승팀에게도 1천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개막식의 크리테리움에 이어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도로 경기가 펼쳐졌다. 스테이지 2는 공주에서 정읍으로 가는 1백40킬로미터 구간으로 가장 높은 고개의 높이가 1백11.6미터밖에 되지 않는 평탄한 코스다. 서울에서 차량으로 공주까지 이동한 선수들은 1백40킬로미터의 거리를 약 3시간 만에 완주했다. 우승자는 전날 아깝게 3위를 한 박선호 선수였다. 수십명의 선수가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진 판독을 통해 순위가 결정됐고, 박선호 선수는 종합 순위 1위로 나서게 됐다.

스테이지 3은 정읍에서 출발해 강진까지 가는 1백64.5킬로미터의 경기로 KOM 포인트가 주어졌다. KOM은 산악왕(King Of Mountain)을 뜻하는 것으로 산악 구간에서 언덕을 가장 빨리 오른 선수에게 포인트가 주어진다. 투르 드 코리아 2009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구간은 스테이지 5의 지리산 성삼재 구간이었다.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표고차 약 1천 미터를 오르는 급경사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 초반 평지 구간이 많았다면 스테이지 5를 지나면서는 넘어야 할 언덕이 많아져 경기가 한층 더 힘들어졌다. 6월 11일 열린 스테이지 7에서는 7백3미터의 죽령을 넘었고, 스테이지 8에서는 1천94미터의 운두령과 1천19미터의 구룡령을 페달을 밟아 올랐다. 도로 구간 마지막 경기인 스테이지 9는 대단했다. 해발 0미터인 양양에서 출발해 9백24미터 높이의 한계령을 넘은 뒤 5개의 높은 고개를 더 넘어 춘천까지 달렸기 때문이다. 거리만 해도 코스 중 가장 긴 1백97.2킬로미터에 달한다.

전국 10개 도시 지나며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기능 부각

무대는 다시 개막식이 열렸던 서울 올림픽공원. 69명의 선수가 마지막날 크리테리움 경기를 위해 출발선 앞에 도열했다. 3킬로미터를 총 20주회 달리는데, 이 중 10주회는 선도 모터사이클을 따라 대형을 이루며 달리고, 남은 10주회 30킬로미터가 본격적인 승부처다. 지금까지 9일간 가장 빠른 기록을 낸 선수는 스위스의 로저 뵈샤(팀 네오텔)로 2위와는 17초 차다. 순위가 뒤바뀌기 위해서는 1위 선수에게 주어지는 10초의 가산점을 포함하더라도 7초 이상 빨리 골인해야 하는데, 0.1초도 안 되는 순간으로 1위가 결정되는 크리테리움의 특성상 역전은 어려워보였다. 게다가 산악 구간에서 잘 달리는 클라이머보다는 순간가속에 탁월한 스프린터가 유리하기 때문에 개막식에서 순위에 올랐던 선수들이 다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투르 드 코리아 마지막 구간에서 1위를 한 선수는 첫날 경기에서 3위를 차지했던 서울시청의 박선호 선수였다. 그는 결승선 직전의 코너를 통과하자마자 전력을 다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개인종합 우승은 순위 변동 없이 로저 뵈샤가 차지했다. 아울러 단체종합 1위는 일본의 프로팀 메이탄 홈포, 2위는 세이빙스 앤 론스, 3위는 서울시청이 각각 차지했다.

개인종합 우승자 뵈샤는 "마지막 스테이지 10의 올림픽공원 크리테리움에서는 첫날 경기 때 위치 선정을 위한 매우 심한 몸싸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달리려고 했다."며 "마지막 스테이지 순위는 32위지만 종합우승을 차지해 기쁘다"고 밝혔다.

정부의 자전거산업 부흥 의지와 건강, 친환경, 경제성을 지닌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투르 드 코리아 2009의 개최는 뛰어난 실력의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통해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자전거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G

글과 사진 · 한동욱(월간 자전거생활 편집장)

용산전망대에서 바라본 순천만.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다.

녹색성장 지역발전의 모델 순천

내륙습지 복원 · 철새 도래지 보호… 생태도시 도약

자전거 생산 중심도시 선정, 2013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추진…. 전남 순천이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생태 보고(寶庫)인 순천만을 녹색동력으로 삼아 녹색성장시대의 지역발전 모델로 우뚝 서고 있다.

전남 순천시청에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구 27만여 명의 소도시가 '생태수도'라니 과장이 심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순천시 주변을 둘러보면 그저 자화자찬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 이유는 먼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이자 생태의 보고인 '순천만'에서 찾을 수 있다.

순천만은 10여 리(약 4킬로미터)에 이르는 갈대밭과 수많은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갯벌,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져 있다. 전체 갯벌은 40.45제곱킬로미터로, 간조 때면 1제곱킬로미터가 제 모습을 드러낸다. 순천만은 국제적인 습지보호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돼 있다. 흑두루미,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순천만에는 지난해만 무려 2백60만명이 다녀갔다. 아름다운 풍광과 생태자원을 보기 위해 찾은 이들이다. 그러나 지나친 관광객 유입은 순천만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순천시는 앞으로 인터넷 예약제를 통해 하루 1천여 명으로 탐방객을 제한할 예정이다.

뛰어난 자연환경으로 관광객이 넘쳐나면 곳곳에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이 들어서게 마련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편의시설을 더 많이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철새들이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했다. 개발보다 보존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녹색성장을 택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순천만의 전봇대 2백80여 개를 뽑아내는 작업에 착수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미관상으로도 흉하지만 전봇대를 뽑아내면 흑두루미 같은 철새가 부딪쳐 죽거나 다치는 사고

지난해에만 2백60만명이 다녀간 순천만 갈대숲(오른쪽). 국제정원박람회 조감도.

를 막을 수 있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28호로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상에 서식하는 1만여 마리 가운데 3백70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새 보호를 위한 순천시의 노력은 전봇대 제거에 그치지 않는다. 가을 추수할 때 순천만 주변 농민들은 경작지 곡식을 모두 수확하지 않고 3분의 1가량을 그대로 남겨둔다. 철새에게 먹을거리를 주기 위해서다. 수확하지 않은 곡식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신 농가 수입을 보전해준다.

해룡산단 발판 자전거산업 중심지 부상

순천시는 순천만 주변 음식점들을 모두 철거해 내륙습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음식점 9곳 중 6곳은 이미 철거했고, 나머지도 곧 철거한다. 순천시 차용옥 홍보전산과장은 “순천만 갈대밭 주변에 있던 농지와 음식점, 주차장 자리도 모두 내륙습지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9백66억원을 들여 도심과 순천만 사이 6킬로미터 구간 46만 평 부지에 일본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특색 있는 정원이 들어선다.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순천만과 함께 생태관광 코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허범행 홍보전산과 계장은 “기존 박람회는 대회가 끝나면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박람회가 또 다른 폐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원박람회는 대회가 끝나더라도 훌륭한 생태자원으로 남게 된다”고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이유를 밝혔다.

순천은 최근 들어 자전거산업의 중심지로도 떠올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순천과 경북 영천을 자전거 생산 집적화단지로 만든다는 ‘국내 자전거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순천이 자전거 생산 중심지로 주목받게 된 까닭은 인근 해룡산단의 신소재센터를 중심으로 마그네슘 생산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은 알루미늄에 비해 강도는 높으면서도 무게는 3분의 1가량 가볍다. 이미 시제품을 선보인 이 자전거는 당장 올해부터 연간 6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순천시는 이를 통해 2천여 명의 고용 창출, 30개 연관기업 유치, 매출 8천억원 규모의 생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윤우석 센터장은 “자전거는 경량화할수록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순천의 첨단 마그네슘 소재는 고가의 명품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라고 말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순천의 자전거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국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저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 생태관광지인 순천만,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 ‘생태수도’를 표방한 순천시의 움직임은 녹색성장시대 지방발전의 비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G

글과 사진 ·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열린다. 순천 시내와 순천만 상류 사이 1백52만7천 제곱미터의 공간에는 한국, 일본, 프랑스 등 국내외 정원 30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원박람회는 1862년 영국 런던의 그레이트 스프링 쇼를 시점으로 시작됐다. 왕실이나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정원이 박람회를 계기로 일반 시민에게도 레저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도시개발과 환경계획의 일부이자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고 있다.

순천시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면 연간 6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순천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1만명 이상의 일자리와 6천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누원초등학교 학생 18명과 학부모 4명은 지난 5월 23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에서 열린 '아토피 과학 캠프'에 참여했다. 누원초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아토피 천식 예방을 통한 건강 증진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학교. 학생들은 캠프 개회식을 마치고는 나무 이름표도 만들고, 게임도 하고, 집에서 싸온 김밥과 과일도 맛나게 먹었다. 평소 아토피로 인한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던 정희(8)도 이날 하루만큼은 맑은 공기 속에서 맘껏 뛰놀았다. 정희가 가장 재미있어 한 게임은 오후 시간에 열린 '내 몸의 스트레스 날려버려!'. 정희는 "친구들과 신문지로 공을 만들어 골대에 넣는 게 너무 재밌어요!"라며 즐거워했다.

이날 진행 요원들은 아이들이 음식 먹기 전 반드시 손을 씻게 하고, 또 간식으로 과일과 삶은 고구마를 준비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했다. 학부모들은 "이렇게 하루 숲에 나온다고 해서 아토피가 당장 좋아지진 않겠지요. 그래도 맑은 공기 속에서 아토피에 대한 교육도 듣고, 또 부모들끼리 정보 교류도 할 수 있으니 참 좋아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입을 모았다.

#2 인천시 남구의 주부 신선희 씨는 지난 5월 23일 강화도 마니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놀며 배우는 알레르기 그리고 환경'이라는 이름의 1박 2일 캠프에 아들 명우(9)와 함께 참가했다. 평소 명우의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자주 방문했던 인하대병원에서 캠프 소식을 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청소년수련관에 입실하는 것으로 캠프는 시작됐다. 친구들 20명과 함께 갯벌체험을 한 후 저녁식사 전에는 영양과 알레르기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어진 레크리에이션과 캠프파이어로 첫날 밤이 아쉽게 지나갔다. 이튿날에는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 속에서 운동을 하고, 마니산 숲 속도 거닐었다. 신 씨는 "교육 프로그램이 적어서 조금 아쉽긴 해도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명우가 긴장을 풀고 즐겁게 놀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굿바이! 아토피

환경부 '자연 속에서 건강 찾기' 환경성 질환 어린이에 인기

1

2

환경부의 '자연 속에서 건강 찾기(Health In Nature)' 체험 프로그램이 소아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자연 속에서 건강 찾기 체험 프로그램은 자연환경이 청정한 국립공원 등 자연 속에서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환경과 건강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여수호 사무관은 "자연 속에서 건강 찾기 체험 프로그램은 치유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환경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어울림으로써 원기를 얻고, 각종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 환경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우치게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캠프마다 의학전문가 동행… 숲 이로움 배워

환경부는 2007년부터 이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지역과 대상을 확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관하고,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나 국공립 대학병원이 함께 협력해 진행한다.

현재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는 전국에 11곳이 있으며, 이들 센터에서는 아토피, 천식 등 주요 환경성 질환의 상태 파악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연구는 물론 예방 치료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각 캠프에는 전문의와 간호사, 의과대학생 등 전문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한다. 이는 참가 어린이들이 주변 환경이나 음식, 생활습관 등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5월 23일부터 시작된 '놀며 배우는 알레르기 그리고 환경' 캠프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총 20회가 운영되며 약 6백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대개 주말에 1박2일로 진행되지만 2박3일, 당일 체험 등도 있다.

지난 5월 23일 당일 행사로 '아토피 숲 속 캠프'를 진행했던 북한산국립공원의 조혜진 씨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동적인 프로그램과 숲에서 동화책 읽기, 나만의 화분 만들기 등 정적인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아이들 반응이 아주 좋았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아래 표를 참고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보건센터로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환경성 질환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선착순 마감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종희 과장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의 원인과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불어 숲의 이로움과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G

글 · 정지연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1 5월 23일 북한산 도봉숲에서 열린 '아토피 숲 속 캠프'.
2 서울 도봉구 누원초등학교 그림대회 수상작들이 숲길에 아기자기하게 전시돼 있다.
3 숲 해설을 맡은 선생님과 함께 흙을 만지는 체험을 즐기고 있는 어린이들.

체험 프로그램 주요 내용과 일정

프로그램	주관 기관	횟수 및 참여 인원	일 정	장 소	참가비(1인)
아토피 과학캠프	삼성서울병원(02-3410-0804) www.atopycenter.co.kr	4회(회당 30명)	7.25~26 / 8.22~23 9.12~13 / 10.24~25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 숲 속마을)	2만원
맑은 숨 캠프(소아 천식)	고려대 안암병원(02-920-5464) www.atopyfree.org	2회(회당 30명)	7.30~8.1 / 8.29~30	북한산 국립공원	2만원
자연체험 속 건강찾기 캠프(발달장애)	단국대의료원(041-550-3095) www.atopyfree.org	3회(회당 30명)	8.7~8 / 8.10~11 / 8.13~14	계룡산 국립공원	2만원
아토피 과학 캠프	북한산국립공원(031-873-2791)	7회(회당 20명)	6.27 / 7.11 / 8.4 / 8.5 / 8.6 / 9.26 / 10.10	북한산	무료

일러스트 · 이우정

건강보험 궁금증? 전화 한 통으로 OK!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콜 서비스 '행복의 전화 1644-2000' 운영

병원 진료비가 과다하게 징수된 건 아닌지, 병원비 환급을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할 때 1644-2000 전화 한 통이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오는 8월 첫 아이를 출산할 조혜연(34) 씨. 다소 늦은 나이에 초산이라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 얼마 전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았는데, 혈당수치가 1백60이 나왔다. 담당의사는 재검사와 함께 태동 검사도 받으라고 권했다. 조 씨는 병원에서 혹시 불필요한 검사까지 권하는 게 아닌지, 건강보험 처리는 가능한지 미심쩍어 차일피일 검사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 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담전화 '행복의 전화'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 씨의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임신 28주 이상인 임신부의 태동 검사비는 지난 3월부터 1회에 한해 환급 가능하며, 임신성 당뇨 재검 역시 보험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30세 이상 산모, 당뇨 가족력, 혈당수치 1백40밀리그램/데시리터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친절하게 답변했다. 진료비 환급 절차에 대해서도 바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전화 한 통으로 담당직원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일부터 건강보험과 부당 청구 진료비 환급 등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통합 콜 서비스 '행복의 전화'를 운영 중이다. 전국 7개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전화상담 업무를 대표전화 1644-2000으로 통합한 것. 이를 통해 담당부서 직원과 직접 전화 연결이 힘들었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상담과정도 더 상세하고 효율적이게끔 했다.

비교적 간단한 상담이나 민원은 상담원이 직접 답변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엔 담당부서를 연결해 상담해준다. 상담시간도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7시로 2시간 연장했다. 통화량이 많거나 상담시간이 끝나 상담원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이용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주는 '콜백(Callback)' 처리 시스템도 도입했다.

전문교육 받은 상담원 배치…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진 '행복의 전화'를 통해 국민들은 △내가 낸 진료비의 정확성 여부 △진료비 확인신청 방법과 처리내용 △진료비 본인부담금 기준 △병원 위치를 비롯한 각종 병원 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청구명세서 접수방법 및 처리 현황, 수가·약가·치료재료대 및 급여 기준,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결과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행복의 전화' 고객센터 김일영 운영부장은 "어떤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요원들을 콜센터에 배치했다"며 "시범 운영 결과 90퍼센트 이상 만족스럽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문의 · 행복의 전화 1644-2000

4대강
살리기
제 11 화
글 이연수 그림 이호

엄마!
타탁타탁

텅~

첫 휴가 때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갈비 먹이고 용돈 주시더니….

어! 아들! 네가 여기 웬일이야? 설마… 탈영…?

미안해서 어떡하니. 너 군대 가고 적적해서 소일거리로 시작한 건데 내가 거기 정신이 쏙 빠졌구나.
뭘 하시는데요? 운동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천관리추진단 자원봉사 일이야. 수질 모니터링도 하고 수량 측정도 하는 거야.
아….

자원봉사도 좋지만 앞으로는 TMS로 다 할 텐데….
TMS? 그게 뭐니?

자동 수질 검측기를 강에다 설치해서 검측기가 수질 검사 자료를 전송해주면 중앙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여러 지역의 수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대기오염 측정도 그런 식으로 하죠.

다시 말해 시료채취시설, 측정소, 측정기기, 데이터전송장비, DB서버관리 같은 시설들이 네트워크를 이룬 거예요. 토목, 전기, 전자, 전산, 화학, 환경공학 같은 기술이 복합적으로 필요해요.
측정
전송
관리
조치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유식해? 엄마 완전 자랑스러운데.
엄마, 저 공대생이에요.

그런데, 그 TMS인지 뭔지 나오면 자원봉사할 일도 없어지는 거 아니니?
환경을 기계가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실 일은 얼마든지 있을 걸요.

잠자고 있는 예치금 찾아가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휴면 예치금 적극적 반환 제도 추진

국민이나 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사를 할 때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한다.
그런데 예치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예치금을 '적극적으로' 반환해주는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6년 전 경기 김포시에서 상가건물을 짓던 김선영(55)씨는 공사를 하면서 건물 앞 가로수가 문제가 돼 김포시청을 찾아가 가로수 이전 공사를 신청했다. 시의 승인을 얻은 그는 가로수 이전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식재 하자보증금' 1백만원을 예치해야 했다.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다. 따라서 옮겨 심은 가로수가 고사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새 가로수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미리 예치해놓은 것이다.

공사 후 김 씨는 예치금을 낸 사실을 까맣게 잊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으로 예치금 반환을 알리는 공문이 전달됐다. 2년 동안 가로수가 문제없이 잘 자라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씨는 전혀 몰랐던 것이다. 다행히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기에 김 씨는 김포시청에 반환요청을 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일러스트 · 강민지

정부는 소극적인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예치자가 거주지나 사업장을 옮겼을 때도 행정전산조직망을 이용해 현주소를 찾아내는 등 국민들이 예치금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국민(개인, 조합, 기업)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와 관련한 공사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에 대비해 보관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예치해야 한다. 도로 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 가로수 식재 하자보증금 등이 대표적이다. 예치 기간(2~5년)이 지나면 5년 안에 해당 기관에 반환을 요청해 예치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치금은 지자체의 일반수입으로 귀속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예치금을 세입 처리하기 전에 공시송달 공고나 부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이 사실을 예치자는 알 수 없다. 우편송달을 하더라도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중앙부처와 전국 2백30개 지자체에서 잠자고 있는 예치금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예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담당관실 조유지 서기관은 "지금까지의 예치금 반환 행정처리 방식은 국민 편에서 보면 매우 소극적인 행정처리였다"며 "앞으로는 예치자가 거주지나 사업장을 옮겼을 때도 행정전산조직망을 이용해 현주소를 찾아내는 등 국민들이 예치금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각 지자체를 통해 휴면 예치금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치금을 돌려주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암소 두 마리와 마음의 평화

글과 그림 · 최영순

사랑하는 것은 전부를 믿는 것이다.
– N.웹스터(미국 사전편찬가)

화양구곡 중 제1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금사담.
건너편 바위 위에 송시열이 은거하던 암서재가 보인다.

충북 괴산 선유동계곡~화양동계곡

영혼 두드리는 清·風·明·月 신선놀음 한번 해볼까

'청풍명월(清風明月)의 고장' 충청북도의 한복판에 위치한 괴산군은 '산고수청(山高水淸)의 고을'이다. 백두대간의 허리를 이루는 청화산(9백94미터), 조항산(9백51미터), 대야산(9백30미터), 백화산(1천63미터), 조령산(1천25미터) 등과 같이 해발 1천 미터 내외의 고봉들이 즐비하다. 그 고봉들 사이로 굽이쳐 흐르는 선유동계곡, 화양동계곡, 쌍곡계곡, 갈은계곡, 사담계곡 등의 계류는 거울처럼 맑고 얼음처럼 시원하다. 아무리 심한 삼복염천의 무더위도 기를 펴지 못할 정도로 서늘하다. 특히 선유동계곡과 화양동계곡은 그야말로 선경(仙境) 속에 옛 선인들의 자취가 또렷해서 여름철에 답사를 겸한 걷기여행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선유동계곡과 화양동계곡은 괴산군 청천면을 동서로 가로질러 흐른다. 두 계곡은 물길뿐 아니라 사람 다니는 길로도 서로 이어져 있다. 선유동계곡 최상류에 위치한 청천면 관평리 제비소마을에서 화양동계곡 최하류에 놓인 화양제1교까지는 약 10킬로미터에 불과하다. 느긋하게 걸어도 서너 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 시종 빼어난 자연풍광 속에서 시원한 물소리를 벗 삼아 걷는 길이라 혼자 걸어도 외롭지 않다. 게다가 길이 평탄하고 경사가 완만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기에도 좋다.

"금강산 이남 으뜸 산수" 옛 선인 극찬

선유동계곡은 제비소마을에서 시작된다. 실개천 같은 물길을 사이에 두고 경상북도와 맞닿은 마을이다. 마을 앞의 선유교나 폭 5, 6미터의 물길만 건너면 경북 땅인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에 들어선다. 충북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충북도가 관리하는 517번 지방도는 잠깐 동안 경북 땅을 지나기도 한다. 인근에 백두대간의 굵은 산줄기가 우뚝한데도 굳이 이처럼 작은 물길을 도계(道界)로 삼은 까닭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제비소마을에서 선유동 입구까지의 선유동계곡은 길이가 2킬로미터에 약간 못 미칠 정도로 짧다. 하지만 계곡의 풍광은 정수(精髓)만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 압축적이다. 조선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이 이름 붙였다는 선유구곡의 절경이 다 몰려 있다. 퇴계는 청천면 송면리 송정마을의 친척집에 놀러왔다가 이 계곡의 빼어난 산수에 매료된 나머지 아홉 달 동안이나 머물렀고, '신선이 노닐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의 선유동(仙遊洞)이라는 지명도 그가 붙였다고 한다.

선유동문, 경천벽, 학소암, 연단로, 와룡폭, 난가대, 기국암, 구암, 은선암이 선유구곡에 속하는 절경들이다. 그중 제6곡 난가대와 제7곡 기국암에는 아득한 옛적에 신선들이 바둑을 두었다는 전설이 서려 있다. 한 나무꾼이 난가대에 도끼를 놓아둔 채 기국암에서 신선들이 바둑 두는 모습을 구경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느새 5대 후손이 집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우리 속담도 거기서 생겨났다고 한다.

선유동계곡의 물길과 나란히 이어지는 찻길은 여름철 성수기가 아니면 차량통행도 허용된다. 그래서 차량이 몰리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다소 번잡해 걷기조차 불편하다. 하지만 물빛이 워낙 깨끗하고 풍광이 아름다워서 그런 불편함은 상쇄되고도 남는다. 선유동계곡의 제1곡인 선유동문을 지나온 길은 신선의 세계를 벗어나 다시 속세에 들어선다. 더욱이 선유동 입구 삼거리에서 송정삼거리, 송면삼거리를 거쳐 충북자연학습원 삼거리까지 2.5킬로미터 구간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찻길을 따라가게 되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선유동계곡과 화양동계곡은 괴산군 청천면을 동서로 가로질러 흐른다. 느긋하게 걸어도 서너 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 시종 빼어난 자연풍광 속에서 시원한 물소리를 벗 삼아 걷는 길이라 혼자 걸어도 외롭지 않다.

충북자연학습원 앞을 지나면, 길은 다시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화양동계곡 탐방로에 접어든다. 화양동계곡은 선유동계곡에 비해 숲도 한층 울창하고 계곡도 넓고 크다. 자동차 없는 숲길의 주인은 날짐승과 들짐승, 그리고 철 따라 피고 지는 들꽃들이다. 인기척에 놀라 급히 몸을 숨기는 다람쥐, 어치 등의 동물들이 이따금씩 눈에 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한결 가깝고 또렷하다. 게다가 매우 완만한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덕에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뿐하다.

산고수청한 괴산군을 대표하는 명소인 화양동계곡은 넓고 깨끗한 너럭바위와 맑은 계류, 우뚝한 기암절벽과 울창한 숲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곳이다. 마치 당대 최고 솜씨로 그려진 진경산수를 보는 듯하다. 일찍이 조선의 실학자 이중환도 〈택리

가파른 돌계단 위에 자리한 만동묘. 중국 명나라 황제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봉안했던 곳이다.

지〉에서 '금강산 남쪽에서는 으뜸가는 산수'라며 화양동의 풍광을 극찬했다. 하지만 이곳의 절경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대학자인 우암 송시열(1607~1689)의 은거지가 된 뒤부터였다. '우암' 외에 '화양동주(華陽洞主)'라는 호(號)도 사용했던 송시열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 이곳에 은거하면서 경치가 빼어난 아홉 곳을 화양구곡이라 명명했다.

경천벽, 운영담, 읍궁암, 금사담, 첨성대, 능운대, 와룡암, 학소대, 파천이 화양구곡에 속하는 절경들이다. 그중 제2곡 운영담은 '맑은 물에 구름의 그림자가 비친다'는 뜻으로 주자의 '천광운영(天光雲影)'이라는 시구에서 따왔다고 한다. 그리고 제3곡 읍궁암은 효종이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승하한 것을 크게 슬퍼하던 우암이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 통곡했던 바위라고 한다.

물속에 금빛 모래가 깔려 있는 제4곡 금사담은 화양구곡의 으뜸가는 절경으로 손꼽힌다. 게다가 물가의 우뚝한 바위에는 우암의 독서재였던 암서재가 올라앉아 있다. 효종 6년(1655)에 처음 세워진 이 건물의 뒤쪽에는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시야가 훤한 앞쪽으로는 화양동계곡의 아름다운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과연 평정심을 유지하며 책을 읽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화양서원 들러 역사의 향기도 맡아보고…

화양동계곡에는 송시열을 배향한 화양서원이 들어서 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위세 높은 서원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곳이다.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의 은거지에 세워진 사액서원(임금이 편액, 서적, 토지 등을 하사한 서원)이었던 데다 만동묘(萬東廟)를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당시 원군을 보낸 중국 명나라 신종과 마지막 임금 의종의 위패가 봉안된 만동묘는 우암의 제자인 권상하, 정호 등이 1703년에 창건했다. 그 이름은 화양동계곡 첨성대 암벽에 새겨진 선조의 친필 '萬折必東(만절필동)'에서 따왔다. '황하

선유동계곡 상류에 위치한 선유구곡의 제1곡인 선유동문. 속이 훤히 비칠 정도로 물빛이 맑다(왼쪽).
고운 모래밭과 맑은 계류, 우뚝한 기암절벽이 한데 어우러진 운영담. 화양구곡의 제2곡이다.

화양구곡에 얽힌 역사와 선인들의 흔적을 하나씩 더듬다 보면 약 5.5킬로미터에 이르는 화양동계곡의 종점에 당도한다. 역사의 흔적과 옛 사람들의 자취가 또렷한 길을 지나온 탓인지, 잠시 동안 세월을 거슬러 시간여행을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든다.

선유구곡의 제7곡 기국암(사람이 서 있는 바위)과 제9곡 은선암(오른쪽 바위).

는 아무리 곡절이 많아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의 이 말은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신하된 도리를 결코 그만둘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이 크게 고조돼 있던 터라, 만동묘를 끼고 있는 화양서원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며 모두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다. 훗날 고종 때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을 불러왔을 정도로 그악스럽던 화양서원의 횡포는 오랫동안 지속됐다.

파락호 시절의 흥선대원군도 화양서원 앞에서 큰 봉변을 겪었다고 한다. 당시 만동묘에 들어가거나 그 앞을 지나가려면 누구나 초입의 하마소에서부터 걸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동묘를 찾은 대원군이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무심코 하마소를 지나쳤다. 그러자 만동묘의 묘지기가 득달같이 달려나와서는 그를 말에서 끌어내려 발길로 걷어차는 등 갖은 모욕을 주었다. 훗날 정권을 잡은 흥선대원군은 화양서원과 만동묘를 '도적놈들의 소굴'이라며 철폐해버렸고, 뒤이어 다른 서원들까지도 문을 닫도록 명령했다. 그 뒤로 오랫동안 집터와 주춧돌만 남아 있던 옛 만동묘와 화양서원 터에 최근 여러 건물들이 복원됐다.

화양구곡에 얽힌 역사와 선인들의 흔적을 하나씩 더듬다 보면 약 5.5킬로미터에 이르는 화양동계곡의 종점에 당도한다. 역사의 흔적과 옛사람들의 자취가 또렷한 길을 지나온 탓인지 잠시 동안 세월을 거슬러 시간여행을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든다. 이래저래 선유동계곡에서 화양동계곡으로 이어지는 길의 여운이 오래도록 스러지지 않는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여행 정보

숙박 화양구곡의 금사담 앞에 자리 잡은 화양식당(043-832-4392), 청주식당(043-832-4581), 동원식당(043-832-4572) 등에서는 민박이 가능하다. 화양동계곡 인근의 청천면 금평리에 상연펜션(010-9486-7061), 달맞이펜션(011-491-2923), 은하수펜션(010-4693-5557) 등의 숙박업소가 있다.

그리고 선유동계곡 초입의 송면리에는 미대동펜션(043-833-0869), 초원의집(043-833-2664) 등의 펜션이 있고, 선유동계곡 내에는 은선휴게소(043-843-3871), 선유동휴게소(043-833-8008) 등의 민박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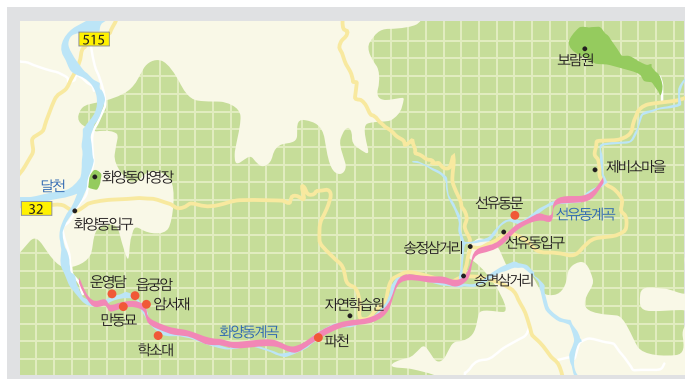
화양동 입구 삼거리 부근의 달천 강변에는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화양동분소(043-832-4347)가 운영하는 화양동야영장이 조성돼 있다. 빼곡하게 들어찬 플라타너스나무 그늘이 시원스럽고, 바로 옆의 달천에서 견지낚시나 가벼운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은 야영장이다.

맛집 화양동계곡 내의 화양식당, 청주식당, 동원식당 등에서는 산채백반, 토종닭, 도토리묵, 버섯찌개 등의 향토음식을 내놓는다. 그리고 화양동에서 증평IC를 오가는 길에 지나는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에 위치한 호산죽염된장(043-832-1388)은 국산콩을 사용해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백반이 일품이다. 그리고 화양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신토불이가든(043-832-5376)은 올갱이국을 비롯한 올갱이 요리를 잘하기로 소문난 맛집이다.

호산죽염된장의 된장찌개백반.

가는 길

자가용 중부고속도로 증평IC(510번 지방도)→화성교차로(34번 국도)→청룡교차로(청안 방면)→금신사거리(592번 지방도)→부흥사거리(직진 · 37번 국도)→금평삼거리(좌회전 · 32번 국지도)→도원교삼거리(우회전)→화양동계곡

대중교통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043-235-6543)에서 괴산군 청천면 소재지의 청천정류소(043-832-4027)를 거쳐 화양동, 송면삼거리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하루 9회(07:20, 09:20, 11:20, 12:20, 14:00, 15:00, 16:40, 17:15, 19:00) 출발한다. 화양동(입구)까지 1시간 20분, 송면삼거리까지 1시간 35분 소요. 청천정류소에서 화양동과 송면삼거리, 선유동계곡 후문 쪽의 제비소마을을 경유해 상관평마을까지 가는 군내버스는 하루 3회(10:10, 14:00, 19:20) 출발한다.

뮤지컬 '클레오파트라' & 이집트 문명전 '파라오와 미라'

그곳에 가면 이집트가 있다

희대의 요부이자 지략가로 꼽히는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가 〈뮤지컬 클레오파트라 2009〉로 부활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공연 중인 이 뮤지컬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올해의 특별전시인 이집트 문명전 '파라오와 미라'와 짝을 이뤄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왕소영 홍보팀장은 "뮤지컬을 보러 왔다가 전시회를 찾는 관객들이 상당수"라며 "별도로 운영하는 이집트 기념품점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국내 초연에 이어 다시 막을 올린 이 작품은 클레오파트라의 삶을 드라마틱한 요소와 아름다운 의상, 화려한 무대를 통해 오페레타 형식의 웅장한 뮤지컬로 승화시킨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우들의 호연 또한 이 뮤지컬의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주인공 클레오파트라는 뮤지컬 〈신행진! 와이키키〉 〈브로드웨이 인 드림즈〉 〈페이스 오프〉 등에 출연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전수미와 4백5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단숨에 주역을 거머쥔 기대주 박란이 번갈아 연기한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장군이자 정치가이면서 클레오파트라가 왕위에 오르도록 도와주는 시저 역할은 영화배우 공형진과 뮤지컬 배우 정찬우, 여운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이밖에도 〈돈 주앙〉에서 돈 카를로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낸 '뮤지컬어워드 신인상 후보' 조휘, 지난해 공연에서도 냉철하고 비열한 옥타비아누스 역을 열연한 실력파 배우 최성원 등이

일시	~7월 12일(일)까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7시, 일요일 오후 2·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6만원, S석 3만원
문의	1544-5955 www.musical-kleopatra.com

함께한다. 이 작품을 통해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공형진은 "처음 접하는 뮤지컬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부담도 크다. 하지만 멋진 연기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겨드리기 위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새로운 각오로 임한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강성만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상호연계로 복합문화공간 장점 살릴 것"

정경택 기자

〈뮤지컬 클레오파트라 2009〉는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강성만(48) 사장이 직접 기획했다. 지난해 11월 문화재단 2대 사장으로 취임한 강 사장은 첫 사업으로 이를 추진했다.

"박물관 특별전시인 이집트 문명전과 밀접한 공연을 찾다가 〈클레오파트라〉를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박물관의 전시와 연계한 공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요. 클레오파트라가 끝나면 이집트를 소재로 한 어린이 뮤지컬이 이어져요. 여름방학을 맞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강 사장은 문화재단의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예술사업을 박물관 전시기능과 조화롭게 운영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일회성 관람으로 끝나는 여느 곳과 달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공연과 전시유물을 함께 볼 수 있고, 문화상품 쇼핑과 식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각종 문화편의시설이 들어섰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각종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문화재단의 대표사업은 극장 '용'의 공연을 기획하고, 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를 모티프로 한 각종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집트 문명전 '파라오와 미라'와 관련한 문화상품도 33개 품목 1백여 종을 개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과 카페 9개 매장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 사장은 "극장 '용'은 모든 관람객의 문화충전소로 활용하고 박물관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아이들에게 무궁한 창의성을 일깨우는 최적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4江의 기적
강변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회복의 강
녹색성장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창조의 강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와 만나는 소통의 강
'4대강 살리기'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녹색성장의 시작입니다.

물부족·물오염·물난리 없는 4대강 살리기로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앞당기겠습니다

물 맑은 대한민국! 문화의 큰 줄기가 흐르는 옛 강의 모습 그대로
4대강이 국민 곁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미 정상회담

양국 동맹 미래 청사진 되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공조'를 굳건히 하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격상시켰다. 한미 FTA에도 큰 진전을 보았으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6월 1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